차 례

머 리 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력사에 대한 학습을 잘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조선력사를 깊이 학습하는것은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가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우리 나라 력사와 문화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자랑스럽기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있다.

우리 선조들은 오랜 세월 끊임없이 달려드는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을 영예롭게 지켜냈으며 뛰여난 지혜와 재능으로 세계적인 발명을 하고 귀중한 문화유산들을 창조하였다.

우리는 조선력사과목학습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잘 알아야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참된 아들딸로 자라날수 있다.

중학교 제3학년 조선력사교과서에는 원시사회로부터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와 발해까지의 력사내용이 년대적순차성에 따라 서술되여있다.

여기서는 이 나라들이 언제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멸망되였는가, 그 과정에 어떤 사건과 사실들이 있었고 어떤 자랑스러운것들을 만들어냈는가,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찾아보게 되는가 하는것들을 배우게 된다.

학생들은 조선력사학습을 잘하여 위대한 **김정은**선생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인재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제1장. 원시공동체사회

제1절. 원인들의 생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인류사회의 려명기로부터 이 땅에서 살면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으며 이 과정에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여왔다.

1. 인류의 발생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150만년전에 발생하였다.

사람은 원숭이의 한 종류인 류인원으로부터 발생하였는데 세상에 처음 나타난 이 시기 사람을 《원인》이라고 한다.

원인은 원숭이와 비슷한 특징을 많이 가지고있었다.

2. 검은모루유적

주체55(1966)년 황해북도 상원군 흑우리에서 검은모루유적이 발견되였다.

100만년 이전에 원인들이 남긴 이 동굴유적은 길이가 약 30m, 높이가 2.5m이다.

유적이란 옛날 사람들이 생활을 진행하는 과정에 창조하여 남겨놓은 집자리, 무덤, 성, 절간 등 움직일수 없는 대상을 말한다.

검은모루유적에서는 원인들이 잡아먹고 버린 수십종의 짐승뼈화석과 석기들이 나왔다.

뼈화석이란 오랜 옛날에 살던 사람이나 짐승의 뼈가 땅에 묻혀 돌같이 굳어진것을 말한다.

짐승뼈화석들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의 당시의 자연

환경과 기후조건을 잘 보여준다.

검은모루유적에서 나온 메돼지, 승냥이, 곰, 물소, 원숭이, 코끼리, 큰쌍코뿔이 등 짐승뼈화석을 보면 대체로 더운 지방에서 사는 동물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또한 뼈화석들중에는 물소, 해리, 습들쥐 등 습기가 많고 물이 있는 곳에서만 사는 동물들이 있는것으로 보아 그 시기 기후는 매우 무덥고 비내림량이 많았으며 검은모루유적주변에 강과 울창한 수림, 진펄이 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검은모루유적에서는 여러점의 석기들도 나왔다.

검은모루유적에서 나온 돌도구들

얼마나 거칠게 만들었는지 막돌인지 석기(돌로 만든 로동도구)인지 가려보기 힘들다.

자연상태에 있는 돌을 깨뜨려서 만든 이런 석기를 타제석기라고 한다. 이 시기를 구석기시대라고 한다. 타제석기는 막돌이나 거의 다름없는것이였지만 그것은 사람이 생겨나 처음으로 만든 로동도구였다.

3. 원인들의 생활

원인들은 타제석기로 나무를 찍거나 다듬어서 곤봉, 몽둥이 등을 만들었다. 또 그것으로 짐승을 잡거나 나무열매를 따먹으면서 살아갔다.

짐승사냥은 원인들의 생활을 유지하는데서 중요한 생산활동이였다.

그들은 집이 없이 검은모루유적과 같은 동굴이나 바위밑, 해가 비치는 따뜻한 곳에서 살았다.

원인들은 지금 사람들처럼 곧바로 서서 걷지 못하였다.

손도 물건을 만들거나 일하는데 편리하게 되여있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로동도구는 매우 유치하였다.

원인들은 몇십명씩 무리를 지어 살았다.

그것은 그들이 혼자서는 먹을것을 구하기가 힘들고 사나운 짐승들의 습격도 막아낼수 없었기때문이였다.

오직 여럿이 힘을 합쳐야만 살아갈수 있었다.

원인들의 무리생활은 백수십만년동안 계속되였다.

제2절. 고인들의 생활

1. 화대사람

주체89(2000)년 6월 칠보산 남쪽변두리에 있는 함경북도 화대군 석정리에서는 화산용암에 완전히 묻혀있는 사람의 화석이 나왔다.

여기에서는 3개체분에 해당한 어른의 머리뼈와 미성년남자의 뼈, 어린아이의 뼈가 부분적으로 나왔다.

화석이 발견된 고장의 이름을 따서 《화대사람》이라고 부른다.

이 화석의 인류학적특징으로 보아 지금으로부터 30만년전의 《고인》에 속하는 사람의 화석이다.

고인이란 원인보다 발전한 오랜 옛날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인은 원인보다 몸구조가 발전하였다.

몸자세에서 원숭이와 비슷한 모습이 없어지고 두발로 곧추 서서 자연스럽게 걸었다. 또한 손으로 여러가지 동작을 할수 있게 되였다.

고인의 머리뼈는 원인에 비하여 더 커졌으며 얼굴모습도 이제

는 원숭이와 구별되였다.

최근 년간 우리 나라에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에 대한 조사사업을 심화시키는 과정에 황해북도 황주군 읍에 있는 청파새동굴에서 5개체분의 인류화석이 발굴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발견된 고인으로서는 주체62(1973)년에 평안남도 덕천시 승리산동굴유적에서 나온 덕천사람이 있으며 주체66(1977)년 평양시 력포구역 대현동굴에서 력포사람이 발견되였으며 중국동북지방을 비롯하여 여러곳에서 고인들의 유적이 많이 발견되였다.

2. 라선시 굴포리유적

주체52(1963)년에 라선시 굴포리에서는 고인들의 생활을 알수 있게 하는 유적유물이 나왔다.

굴포리유적은 2개의 층으로 되여있는데 아래에 있는것이 고인들의 유적이다.

여기서는 고인들이 살던 초막자리와 그들이 쓰던 석기들이 발견되였다.

초막은 바닥을 평평하게 다진 다음 나무가지를 경사지게 세우고 그우에 풀이나 짐승가죽을 덮었다.

이것은 사람이 바람이나 눈, 비, 추위를 막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지은 첫 집이였다. 이러한 초막자리유적은 여러곳에서 나왔고 거기서는 고인들이 만들어쓴 석기들이 발견되였다.

그들이 만든 석기는 만능도구로서 형태도 여러가지이고 크기도 알맞춤하였으며 날도 예리하였다.

그들은 돌뿐아니라 짐승의 뼈나 뿔로 만든 로동도구도 썼는데 이것을 골각기(뼈도구)라고 한다.

고인들은 이전보다 힘을 적게 들이고도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었다. 이 시기 식물채집은 주로 녀자들과 어린이들이 말아하고 짐승사냥은 힘이 센 남자들이 하였다.

고인들은 오랜 생활과정에 먹을수 있는 나무열매와 뿌리 등을 알게 되면서 그것을 식생활에 리용하였다.

사냥에서는 몰이사냥수법을 많이 썼는데 그것은 여러 사람들이 달라붙어 짐승들을 벼랑이나 함정으로 몰아 떨어지게 한 다음 잡는 방법이였다.

강이나 바다를 낀 곳에서는 조개도 잡아먹었다.

3. 불의 발견

황해북도 승호군 화천동을 비롯한 여러곳에서는 고인들이 불을 피웠던 불무지자리가 발견되였다.

이것은 고인들이 불의 성질을 알고 인공적으로 불을 일굴줄 알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원인들도 불을 리용하였으나 그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불을 유지한데 지나지 않았다.

고인들은 불을 리용하여 추위도 막고 음식을 익혀 먹을수 있었으며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수 있게 되였다.

4. 고인들의 생활

고인들도 무리생활을 하였으나 원인에 비하여 그들의 무리는 더욱 째이고 공고화되였다.

몰이사냥은 사람들사이에 힘과 지혜를 합치지 않고서는 진행할수 없었다.

굴포리에서 발견된 초막도 비록 뒤떨어진것이였지만 그때 사람들로서는 온 집단의 지혜와 힘을 합쳐 지은것이였다.

고인들은 무리안에서 부상당한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주었으며 죽은 사람을 위하여 무덤도 만들었다.

그들은 개별적으로 먹을것을 얻었다고 하여도 그것을 집단이 있는 곳에 가지고와서 다같이 나누어먹었다.

이 과정에 고인들의 집단은 원인들의 무리보다 훨씬 발전하였으며 더욱 단합되여갔다.

제3절. 신인들의 생활과 조선옛류형사람의 형성

1. 신인의 출현

고인들은 수십만년동안 살아오는 과정에 《신인》으로 되였다.

신인이란 몸구조가 현대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 신인의 뼈화석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에서 많이 발견되였다.

대표적인것은 황해북도 승호군 만달리에서 드러난 만달사람이며 이밖에도 평양과 그 일대에서는 룡곡사람, 금천사람, 승리산사람 등이 발견되였다.

만달사람을 비롯한 신인들의 모습에는 조선사람의 특징이 이모저모에서 나타나고있다.

이처럼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에서는 사람이 발생하여 원인－고인－신인으로 발전하면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으며 그들은 마침내 조선사람의 조상으로 되였다.

2. 로동도구와 생산활동

신인들은 로동도구도 훨씬 쓸모있게 만들었다.

만달리동굴을 비롯한 여러 유적들에서는 신인의 뼈화석과 함께 로동도구가 나왔다.

석기들은 잘 다듬어 손에 쥐기 편리하였다.

신인들은 새로운 석기로서 칼날, 새기개(무엇을 새기는데 쓰는 것)도 만들었는데 매우 단단하면서도 날카로왔다.

신석기시대 도구들

신인들은 석기와 함께 뼈도구로서 찌르개, 긁개, 밀개, 송곳도 만들어썼다.

큰 짐승사냥에서는 몰이사냥과 함께 함정을 리용하여 잡는 방법이 널리 적용되였다.

사슴과 같은 짐승들을 잡는데는 돌창, 뼈창끝, 투창이 리용되였다.

여러가지 사냥도구가 나오고 특히 활과 화살이 발명되면서 짐승을 보다 쉽게 잡았다. 이것은 원시시대 기술발전에서 큰 전진으로 되였다.

신인들은 물고기도 잡아먹었는데 여기에 쓰인 도구로는 뼈낚시, 뼈작살 등이 있었다.

그들은 뼈바늘을 가지고 짐승가죽으로 옷이나 신발 같은것을 만들어 리용하였다.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에서는 벽체와 기둥자리가 있는 집자리가 발견되였다.

이것은 신인들의 집짓는 기술이 고인들보다 더 발전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3. 씨 족

신인들은 원시적인 무리상태에서 벗어나 더 크고 힘있는 사회적집단인 씨족을 이루었다.

사람들은 무리생활을 하는 과정에 가까운 친척, 자기가 속해있

는 집단을 알게 되면서부터 한 피줄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살게 되였다.

씨족은 바로 이렇게 생겨났다.

씨족은 처음에 어머니를 중심으로 형성되였는데 이것을 모계씨족이라고 한다.

그때 당시 씨족을 유지하고 씨족성원들을 먹여살리는데서 녀자들이 남자들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남자들은 사냥이나 물고기잡이에서 헛탕을 치는 때가 있었지만 녀자들의 식물채집은 안전하고 믿음성이 있었다. 집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키우는것도 모두 녀성들이 하는 일이였다.

그러므로 씨족안에서 녀성들의 지위가 높았으며 씨족성원들은 그의 지휘에 복종하게 되였다.

피줄관계(친척관계)도 어머니켠으로만 따질수 있었고 자식들은 자기 어머니는 알아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때는 남자들이 녀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살았는데 지금처럼 한집에서 부부끼리 생활하지 못하였으며 아버지는 손님처럼 되여있었다.

모계씨족공동체는 신석기시대 전기까지 계속되였다.

4. 조선옛류형사람

조선옛류형사람은 신인에 이어 우리 나라 땅에서 산 사람이다.

평양시 강동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조선옛류형사람의 뼈화석이 발견되였다.

조선옛류형사람은 몸구조가 완성되고 얼굴모습에서 조선사람의 특징이 명백히 나타나는 우리 민족의 선조이다.

조선옛류형사람은 수천년을 살아오는 과정에 현대조선사람으로 되였다.

5. 신석기시대

1) 간석기(마제석기)

조선옛류형사람들은 신석기시대에 지금의 우리 나라 땅을 비롯한 중국 동북지방, 로씨야 연해주지방에 퍼져살았다.

사람들은 타제석기대신에 간석기를 썼다.

간석기란 돌을 깨뜨린 다음 다시 잘 갈아서 만든 돌도구를 말한다. 간석기를 새로운 돌도구라는 뜻에서 신석기라고 한다.

이 시기에 진흙을 빚어 음식물을 끓이거나 저장하는데 쓸수 있는 질그릇도 만들었다.

이렇게 간석기와 질그릇을 만들어쓰던 시기를 신석기시대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 신석기시대는 B.C.(기원전) 7000년기부터 시작되여 B.C.4000년기 전반기까지의 시기에 해당된다.

2) 농사와 집짐승기르기

신석기시대사람들의 생활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농사와 집짐승기르기를 시작한것이다.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은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표대유적, 남포시 온천군 궁산유적, 황해북도 봉산군 지탑리유적 등이다.

여기서는 농사 짓는데 쓰던 간석기들과 돼지뼈, 개뼈가 나왔다.

지탑리유적에서는 불에 탄 낟알까지 발견되였다.

사람들은 무성한 풀과 나무를 베거나 찍어내고 땅을 일군 다음 씨앗을 심었다.

가을이 되면 돌낫, 반달칼로 곡식의 이삭을 잘라 거두어들였다.

낟알은 갈돌을 리용하여 껍질을 벗겨먹었다.

사람들은 처음에 괭이농사를 하다가 점차 갈이농사로 넘어갔다.

괭이농사는 괭이를 가지고 땅을 뚜져서 씨앗을 심는것이고 갈이농사는 돌보습으로 땅을 갈아엎고 농사를 짓는 방법이다.

그때 사람들이 심던 곡식은 조, 기장, 콩, 수수, 팥 등이였다.

신석기시대사람들은 사냥을 오래동안 하는 과정에 짐승을 산채로 잡아 집에서 기르면서 마침내 집짐승을 기르는 법도 알게 되였다.

여러 유적들에서 나온 돼지뼈, 개뼈들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과 털로 옷을 해입고 집짐승젖을 짜서 아이들에게 먹였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점차 한곳에 머무르면서 움집을 짓고 살았다.

움집이란 땅을 일정한 깊이로 파고 움형식으로 지은 집을 말한다.

방 한가운데는 불을 피우는 화독을 놓고 음식물을 끓여먹었는데 부엌은 따로 없었다.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집자리유적에서는 또한 여러가지 크고작은 질그릇들이 발견되였다.

사람들은 질그릇에 점과 선으로 여러가지 무늬를 새겼는데 이것을 새김무늬질그릇이라고 한다.

새김무늬질그릇은 우리 나라 신석기시대의 유적들에서만 볼수 있는 독특한것이다.

신석기시대 질그릇들

3) 부계씨족

모계씨족공동체는 보습에 의한 갈이농사가 시작되면서 부계씨족공동체로 바뀌였다.

부계씨족공동체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여 씨족이 이루어지고 남자들이 씨족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신석기시대에 씨족을 유지하는데서 농사는 결정적역할을 하였다.

처음에는 녀자들이 괭이농사를 맡아하였으나 무거운 돌보습으로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 갈이농사는 힘이 약한 녀자들이 할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남자들이 농사도 짓고 사냥과 물고기잡이를 도맡아하면서 씨족을 먹여살리였다.

가정을 이루면 그전과는 달리 녀자가 남자켠으로 와서 한집에서 같이 살았다.

자식들은 어머니뿐만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였다.

남자들은 씨족성원들의 신임으로 씨족을 지휘하는 권한도 가지게 됨으로써 모계씨족공동체는 점차 부계씨족공동체로 넘어갔다.

씨족은 인구가 불어나면서 여러개의 씨족으로 갈라졌다.

갈라진 씨족들은 몇개씩 모여 대씨족을 이루고 다시 대씨족이 여러개 모여 종족을 형성하였다.

씨족공동체생활을 조직지휘하는 씨족평의회에서는 씨족장을 선출하고 싸움이 일어나면 따로 군장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씨족안에서 생기는 중요한 일들을 토의결정하였다.

족장이나 군장으로는 나이와 경험이 많고 신망있는 사람이 되였다.

씨족안에서는 높고낮은 사람이 따로 없었으며 네것내것도 따로 없었다.

6. 금속의 발명과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오랜 기간 생산활동을 벌리는 과정에 금속을 발견하고 리용하게 되였다. 처음으로 발견한것은 동과 금이였다.

그러나 동은 너무 물러서 로동도구나 무기를 만들어도 쓸모가 적었다.

그후 동에 주석, 연 등을 적당히 섞어 보다 굳은 합금속인 청동(놋)을 얻어내고 그것으로 여러가지 로동도구나 무기를 만들어쓰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청동도구를 쓰던 시기를 청동기시대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 청동기시대는 B.C.4000년기 후반기로부터 시작되였다.

청동기시대유적은 지금까지 수백개나 발견되였는데 대표적인것은 평양시 사동구역 금탄리유적,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남경유적, 함경북도 회령시 오동유적이다.

유적들에서는 청동으로 만든 칼, 창, 활촉과 같은 무기들, 도끼, 끌, 송곳 등 로동도구들 그리고 방울, 단추 등이 나왔다.

당시 청동은 원료를 얻기가 힘들었기때문에 청동기와 함께 간석기도 계속 만들어썼다.

청동기시대유적에서는 조, 피, 수수, 콩과 함께 벼가 발견되였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아주 먼 옛날에 벌써 여러가지 발곡식과 함께 벼도 심어가꾸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집짐승기르기가 발전하여 개, 돼지와 함께 소, 말과 같은 큰 짐승도 길렀다.

소나 말은 잡아먹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는데 리용하였다.

생산한 곡식과 물건이 많아지면서 질그릇도 많이 만들었다.

사람들은 검은색, 밤색, 붉은색질그릇을 만들어썼다. 밑부분이 팽이처럼 생긴 질그릇(팽이그릇)도 만들었다.

청동기시대사람들은 집도 쓸모있게 지었다.

집은 땅을 약간 파고 지은 네모난 반움집인데 받침돌우에 기둥을 세우고 벽에는 창문까지 냈다.

이와 같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에서는 원인－고인－신인－조선옛류형사람들이 남긴 수많은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였다.

이 일대에서는 후에 평양을 수도로 정하고 성립된 고조선시기의 유적유물들도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인류발생초기부터 고대시기의 문화유적유물이 수많이 드러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의 문화를 대동강문화라고 한다.

제4절. 원시공동체사회의 붕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연과 사회는 다 자기의 발전법칙을 가지고있습니다.》

원시공동체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발생하는것은 사회력사발전의 법칙이다.

우리 나라에서 원시공동체사회는 지금으로부터 5 000여년전에 무너졌다.

1. 계급의 발생

원시사회말기에 생산한 물건이 많아지면서 먹고 쓰고 남는것이 생기게 되였다.

청동으로 만든 보습, 삽, 도끼, 낫 등으로 농사를 지으니 이전보다 힘을 적게 들이고도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이게 되였다.

청동활촉, 청동창을 리용하여 짐승도 많이 잡았다.

이 시기 사람들이 하는 일도 서로 달랐다.

로동도구를 만드는 사람, 질그릇을 빚거나 짐승을 기르는 사람, 강이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을 서로 바꾸어쓰기 시작하였다.

로동도구가 개선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가족단위로도 얼마든지 살아나갈수 있게 되였다.

토지, 소, 농기구 등도 가족별로 가졌으며 네것내것을 가르게 되면서 개인재산이 생겨났다.

세월이 흐르면서 개인재산의 차이가 크게 생기였다.

부자로 된 추장을 비롯한 공동체우두머리들은 점차 가난한 사람들을 부려먹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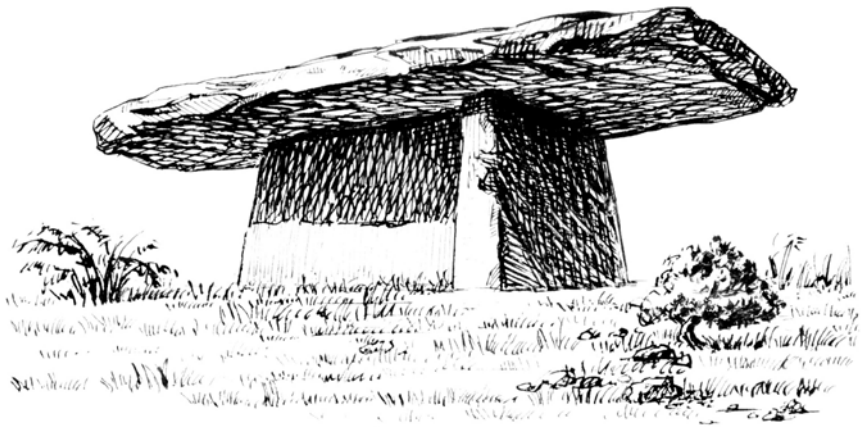
공동체우두머리들은 이웃종족들과의 싸움에서 빼앗은 물건과 포로들을 제것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포로와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얽매여 짐승처럼 일하게 되였다. 이들을 노예라고 한다.

씨족장, 종족장을 비롯한 부자들은 많은 재산과 노예를 소유한 노예주로 되였다. 당시 추장들은 수많은 로력을 들여 무게가 30~40t이나 되는 큰 돌을 가지고 무덤을 만들었다.

이런 무덤을 고인돌 또는 고인돌무덤이라고 한다.

원시사회말기에 사람들사이의 변화된 관계는 이런 고인돌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착취계급인 노예주와 착취받는 계급인 노예로 갈라졌으며 평등하던 원시사회는 점차 무너졌다.

고인돌무덤(황해남도 은률군 관산리)

2. 국가의 발생

원시공동체사회말기에 사람들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정치조직이 나왔다.

씨족공동체의 재산이 늘어나고 날을 따라 씨족공동체의 규모도 더욱 커졌다.

이때 종족들은 다른 종족들을 정복하기 위한 싸움을 자주 벌리였다. 강한 종족들은 약한 종족들을 통합하여 보다 큰 공동체로 되였다. 그때부터는 종족장 혼자서 모든 일을 조직하고 지휘하기가 힘들게 되였다.

이리하여 사람들을 관리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서면서 전문적인 정치조직이 나오게 되였다.

한편 원시사회말기에 노예주로 된 착취계급은 노예들의 반항을 억누르고 저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과 군대, 감옥과 같은 폭력기구들을 만들어냈다.

노예주들은 이러한 폭력기구를 이미 있던 전문적인 정치조직과 결합하여 저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포괄적인 정치조직으로 만들었다.

바로 이것이 국가였다.

이처럼 국가는 사회가 계급으로 분렬되면서 출현한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다.

노예주들은 국가권력을 틀어쥐고 그것을 자기들의 리익을 옹호하는데 리용하였다.

계급과 국가의 발생으로 원시공동체사회는 무너지게 되였다.

세상에 처음 나타난 국가는 노예소유자국가였다.

이때부터 인민대중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제2장. 노예소유자사회

제1절. 고조선

1. 단군조선의 성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고조선은 우리 민족이 자체로 세운 나라입니다.》

오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먼저 나라를 세웠다.

우리 민족이 세운 첫 국가는 조선(고조선)이였다.

조선을 세운 왕은 단군이였다. 그래서 고조선을 단군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 단군의 출생과 성장

단군은 지금으로부터 5 000여년전에 평양에서 태여났다.

평양지방은 대동강이 감돌아흐르고 높고낮은 산들과 기름진 들이 펼쳐져있어 예로부터 사람들의 삶의 보금자리로 되여있었다.

평양에서는 검은모루유적을 남긴 원인을 비롯하여 고인, 신인이 발생하여 대를 이어 살아오면서 깊이 뿌리를 내렸고 그들은 마침내 조선사람의 선조로 되였다.

단군의 아버지는 환웅이였다.

환웅은 단군이 태여날 때 박달종족련맹의 추장으로 있었다.

어머니는 이웃한 지역에서 살고있던 다른 종족 추장의 딸이였다.

단군이 자라나던 시기는 원시공동체사회가 무너져가고 종족들간의 싸움이 계속되던 때였다.

단군은 어릴 때부터 활쏘기와 창쓰기, 칼쓰기 등 무술을 익히는데 열중하였다.

그의 무술솜씨는 이웃종족들에게까지 알려졌다.

2) 단군에 의한 고조선의 성립

어려서부터 남달리 영특하였던 단군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추장이 되였다.

단군은 이웃한 종족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자기 종족과 맞서는 종족들은 군사를 동원하여 강하게 눌러놓고 통합하였다.

그리하여 박달종족의 땅은 점차 넓어지고 인구도 불어났으며 재부도 전례없이 늘어나게 되였다.

단군은 지금으로부터 반만년전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였으며 수도를 평양으로 정하였다.

단군이 세운 조선은 그후 고조선이라고 불리웠다.

그것은 그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또 세워졌으므로 서로 갈라보기 위해서이다.

고조선이라는 말은 옛조선이라는 뜻이다.

단군은 나라를 세운 후에 주변종족들을 통합하면서 계속 령토를 넓혀나갔다.

그리하여 고조선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북쪽과 남쪽으로 넓은 령토를 가진 강대한 나라로 발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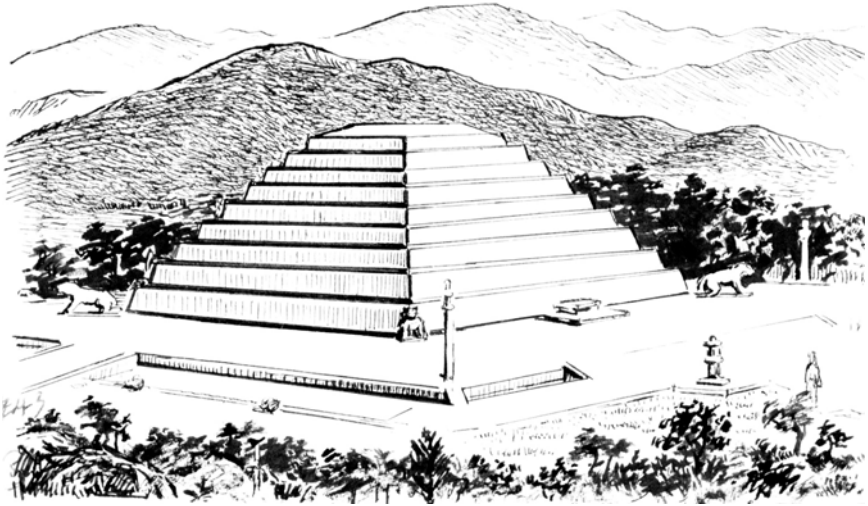
이 시기 세계의 여러 지역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원시공동체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옛날책에 씌여있는 고조선의 건국전설인 《단군신화》는 단군이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나라를 세운 사실을 보여주고있다.

평양시 강동군에는 단군의 무덤이 있다.

단군은 우리 민족의 풍습대로 죽은 다음 자기의 고향인 평양에 묻혔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조선민족의 시조릉인 단군릉을 웅장하게 개건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주체83(1994)년에 평양시 강동군 대박산기슭에 세워진 단군릉은 동방에서 가장 강하였던 단군조선의 기상을 상징하며 력사에 길이 빛나게 되였다.

단 군 릉

2. 고조선의 발전

1) 삼조선

고조선은 근 3 000년 존재하였다.

이 기간에 전조선(단군조선), 후조선, 만조선이 차례로 있었다. 이것을 삼조선이라고 부른다.

전조선은 B.C.30세기초부터 B.C.14세기 전후한 시기, 후조선은 B.C.14세기 전후한 시기부터 B.C.194년, 만조선은 B.C.194년부터 B.C.108년까지 존재하였다.

고조선은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중국 랴오둥지방까지 령토를 넓혀 동방에서 가장 크고 국력이 강한 나라로 그 이름을 떨쳤다.

2) 룡산리순장무덤과 강상무덤

노예사회에서 노예주가 죽으면 그의 노예들을 노예주의 무덤곁에 따라묻었는데 이런 무덤을 순장무덤이라고 한다.

평안남도 성천군 룡산리에서 순장무덤이 발견되였다.

기본무덤칸의 량열에 10개의 무덤칸이 있었는데 여기서 30여명에 달하는 사람의 뼈가 나왔다.

이 무덤은 고조선이 성립되기 전의 무덤이다. 이것은 고조선이 세워지기 전에 노예주와 노예가 생겨났다는것을 말해준다.

중국 랴오둥반도의 남쪽끝에서 고조선의 한 노예주무덤인 강상무덤이 발견되였다.

무덤에서는 노예주가 죽었을 때 140여명의 노예들을 비롯하여 산사람들을 산채로 함께 파묻어 죽인것이 드러났다.

강상무덤은 노예주들이 얼마나 악착한 놈들이며 노예들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노예주들은 노예들을 물건과 같이 취급하였으며 마음대로 죽이기까지 하였다.

제일 큰 노예주는 왕을 비롯한 높은 관리들이였으며 그들은 수십, 수백명의 노예들을 가지고있었다.

3) 범금8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범금8조〉는 한줌도 못되는 노예주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노예를 비롯한 절대다수의 피압박대중을 억누르기 위한 법이였습니다.》

고조선에는 범금8조라는 법이 있었다.

금지해야 할 8가지 조항의 법이라는 뜻인데 지금 전해지는것은 3개 조항뿐이다.

① 사람을 죽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② 남에게 상처를 입힌자는 곡식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③ 남의 물건을 도적질한자는 남자인 경우에는 도적맞은자의 노예로 만들고 녀자인 경우에는 그 집의 녀자노예로 만든다. 만일 도적한자가 죄를 벗으려면 50만의 돈을 내야 한다.

이 조항들은 마치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공평》한 법인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법은 철저히 노예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노예

를 비롯한 인민들의 반항을 억누르기 위한 법이였다.

노예들을 마음대로 부려먹고 죽일수도 있는 노예주들에게 이러한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았다는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4) 비파형단검

비파형단검은 B.C.3000년기부터 고조선에서 만들어쓴 청동단검이다.

비파형단검은 검날, 검자루, 검자루맞추개로 이루어졌다. 단검의 날은 량쪽이 다 예리한 날로 되였는데 끝이 뾰족하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점차 넓어지다가 량쪽으로 조금 도드라졌으며 그 아래부분은 오무라들었다가 다시 넓어졌다. 그 생김새가 우리 나라 민족악기의 하나인 비파와 비슷하므로 비파형단검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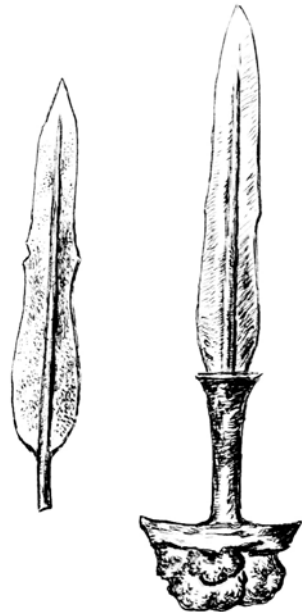
검자루는 ㅗ형으로 생겼는데 여기에 검자루맞추개를 끼우게 되여있다. 검자루와 검날은 조립하게 되여있다.

비파형단검의 특징은 검날의 선이 독특한 생김새로 굴곡을 이룬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그후에 만들어진 좁은놋단검에 계승되였다.

비파형단검은 고조선시기의 유물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것이다. 거기에는 우리 조상들의 청동기제작기술과 예술적재능이 잘 반영되여있다.

비파형단검

고조선의 군대는 비파형단검과 같은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있었기 때문에 외래침략자들의 침략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을 굳건히 지켜낼수 있었다.

5) 신지글자

고조선에서는 일찍부터 글자를 만들어 써왔다.

그때 만들어 쓴 글자를 신지글자라고 한다. 지금까지 16자의 신지글자가 전해온다.

단군조선시기부터 민족의 고유한 글자를 만들어 썼다는것은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얼마나 높았는가를 잘 말하여준다.

3. 고조선의 멸망

왕검성싸움과 고조선의 종말

왕검성은 랴오하하류에 자리잡고있던 고조선의 부수도였다.

왕검성에서는 B.C.109년 가을부터 B.C.108년 여름까지 치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것은 한나라통치배들이 고조선을 점령하려고 많은 침략군을 들이밀어 왕검성을 포위공격하였기때문이다.

한나라는 수만명의 군대를 바다와 륙지로 고조선에 들이밀었다.

나라에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자 우거왕은 태자와 고위관리들을 데리고 왕검성으로 갔다.

그리고 전선사령부를 조직하고 싸움을 지휘하였다.

고조선의 군대와 인민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한사람같이 일떠섰다.

그들은 왕검성을 점령하려고 달려든 한나라의 수군과 싸워 거의다 소멸하였다.

이때 적 수군대장 양복은 얼마나 혼이 났던지 저혼자 산속에서 10여일간이나 숨어있었다고 한다.

이때 적들의 계획은 륙군과 수군이 함께 왕검성을 공격하는것이였는데 륙군은 고조선군대의 타격을 받고 랴오하를 건느지도 못하였다.

바빠맞은 한나라왕은 다시 침략할 준비를 하면서 교활하게도 전쟁을 그만두자는 강화담판을 제기하였다.

고조선의 우거왕은 자기 아들에게 1만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담판을 하게 하였다.

그러자 그 위력에 겁을 먹은 적들은 꽁무니를 빼고말았다.

한나라통치배들은 그후 더 많은 침략군을 내몰아 왕검성을 포위공격하였으며 싸움은 장기전으로 넘어갔다.

싸움이 1년동안 계속되자 성안에서는 희생자가 늘어나고 식량과 무기가 부족하게 되였다. 그러나 왕검성방어자들은 굴하지 않고 싸웠다.

그런데 이때 고조선통치배들속에서 배신자들이 나타나 적에게 투항할것을 왕에게 제기하였다.

우거왕이 이것을 단호히 거절하자 배신자들은 앞잡이를 시켜 우거왕을 죽이고 적들에게 투항하였다.

지휘가 혼란상태에 빠졌을 때 높은 관리였던 성기가 스스로 나서서 왕검성방어전투를 지휘하였다.

적들은 또다시 배신자들을 시켜 성기를 죽이게 하였다.

침략자들은 이러한 정세를 리용하여 왕검성을 점령하였다.

B.C.108년 여름 부수도 왕검성과 그 주변지역이 놈들에게 강점되고 고조선은 멸망하였다.

고조선은 비록 무너졌지만 그후에도 고조선인민들은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리였다.

제2절. 부여, 구려, 진국

1. 부 여

1) 부여의 성립

단군은 나라를 세운 이후 같은 겨레들인 이웃의 여러 종족들을 통합하여 령토를 확대하였다.

단군조선은 통합한 지역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다스렸다.

그중의 하나는 후국을 설치하고 후국왕을 통하여 그 지역을 통치하는것이였다.

후국은 왕족이나 왕이 신임하는 관리 또는 지방에서 가장 세력이 센자들을 후국왕으로 임명하여 통치하는 지역, 하나의 자그마한 왕국이였다.

부여는 처음에 그러한 후국중의 하나였다. 단군조선에 속한 부여는 오늘의 쑹화강을 중심으로 하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있었다.

부여는 점점 강해졌다. 고조선에서도 이제는 부여를 후국으로 종전과 같이 통제할수 없게 되였다.

부여는 B.C.14세기 전후한 시기에 고조선으로부터 떨어져나와 독자적인 노예소유자국가로 자라났다.

부여의 수도는 오늘의 지린부근 둥퇀산일대였다.

2) 부여의 발전

쑹화강주변에는 기름진 벌과 드넓은 초원이 펼쳐져있었다.

부여사람들은 농사와 함께 초원에서 짐승을 많이 길렀다. 그들이 기른 짐승들중에서 제일 이름난것은 말이였다. 부여의 말은 속도가 빠르고 령리하기때문에 이웃나라에까지 소문이 났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부여를 《명마》의 생산지라고 하면서 말을 많이 사갔다.

부여의 군대는 이런 말로 무장하였기때문에 전투력이 높았다.

부여의 군대는 애국심이 높고 무술에 능한 사람들로 조직되였다.

부여사람들은 싸움이 없는 평시에도 집집마다 갑옷, 투구, 활, 창을 늘 준비하고있다가 외적이 쳐들어오면 싸움터로 달려나가군 하였다.

3) 부여의 멸망

B.C.3세기 구려땅에서 고구려가 세워졌다.

부여는 새로 선 고구려를 자기에게 복종시키려고 처음부터 압력을 가하고 군사도 동원시켰다.

그러나 고구려는 자기의 힘을 더욱 강화하면서 부여에 당당히 맞서나갔다.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점점 긴장되여갔다.

드디여 B.C.219년 부여의 남쪽들판에서 고구려와 부여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다. 여기에서 부여는 큰 타격을 받고 그후 점차 약해지기 시작하였다.

어떤 관리들은 왕자리를 탐내여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치기도 하였다. 부여는 더는 나라를 유지할 힘이 없었다.

그리하여 부여는 B.C.219년 고구려와의 전쟁후 그에 예속되면서 종말되였다.

2. 구 려

구려는 부여와 함께 단군조선의 후국으로 있었다.

구려는 오늘의 압록강 중류,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고조선과 부여사이에 자리잡고있었다.

구려는 고조선의 발전된 경제와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힘이 강해졌다. 힘이 강해지자 구려의 관리들은 후국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구려는 B.C.14세기 전후한 시기에 고조선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노예소유자국가로 되였다. 수도는 환인이였다.

구려는 한때 경제도 발전하고 군대도 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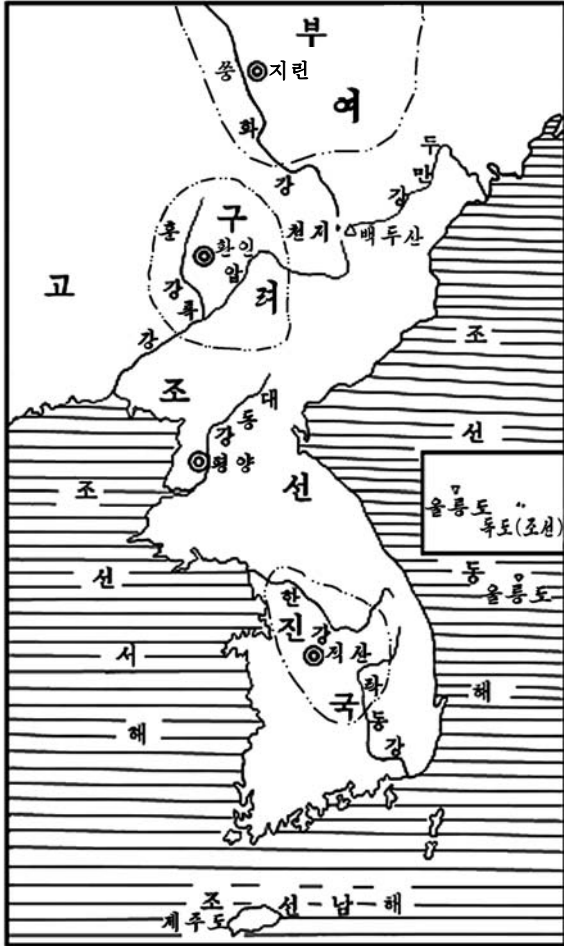
그리하여 큰 나라들인 고조선과 부여사이에 끼여있었지만 수백년동안 나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킬수 있었다.

그러나 노예들의 폭동으로 구려는 점점 약화되였다.

이때 부여왕실에서 갈라져나온 한 집단이 구려에 와서 살면서 자기 세력을 늘여나갔다.

그 집단의 우두머리는 고주몽이였다.

고주몽의 힘과 재주는 누구도 따를수 없었고 그가 지휘하는 세력을 당해낼수도 없었다. 주몽은 구려왕이 병으로 죽자 왕자리를 잇게 되였다.

주몽은 왕이 되자 나라이름을 고구려라고 하고 나라를 봉건국가로 만들었다. 이때가 B.C.277년이였다.

고대국가들의 위치

이렇게 구려는 거기에 봉건국가가 세워지면서 자기의 존재를 끝마쳤다.

3. 진 국

1) 진국의 성립

진국은 고조선의 주도세력의 하나로 되여있던 마한이 진한과 변한의 세력들을 통합하여 우리 나라 중부이남지역에 세운 노예소

유자국가였다.

진국도 한때 고조선의 후국으로 있었다.

후국의 왕들은 복종의 표시로 해마다 고조선에 진귀한 물품들을 바쳐야 하였다.

그러나 고조선의 통치질서가 문란해지면서 후국들은 더는 복종하려고 하지 않았다. 자기들의 힘도 이제는 강해졌던것이다.

그리하여 후국으로 있던 나라들이 하나하나 떨어져나가기 시작하였다.

진국도 부여, 구려와 마찬가지로 고조선으로부터 떨어져나와 B.C.12세기경에 독자적인 노예소유자국가로 되였다.

진국의 수도는 처음에 월지국(충청남도 직산)이였고 그후에 건마국(전라북도 익산)으로 옮겨갔다.

2) 삼한

진국은 수많은 소국들로 이루어져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소국은 마한, 진한, 변한이였는데 이것을 삼한이라고 불렀다.

마한은 조선서해바다쪽에, 진한은 조선동해바다쪽에, 변한은 락동강을 중심으로 하여 마한과 진한사이에 자리잡고있었다.

삼한가운데서 제일 강한것은 마한이였다.

마한왕은 진한과 변한을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나라이름을 《진국》이라고 하였다.

진국의 왕은 언제나 마한귀족출신들만이 될수 있었다.

진국은 A.D.1세기 초중엽에 새로 자라난 백제봉건국가에 의하여 멸망하였다.

제3절. 고대 조선사람들의 일본땅에로의 진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상들은 일본문화의 개척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고대국가들이 한창 발전하고있던 시기 일본사람들은 아직도 락후한 원시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우리 선조들은 먼바다에 나가 물고기잡이를 하는 과정에 오늘날 일본이라고 하는 섬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때 일본땅은 갈대가 무성하고 풀숲으로 뒤덮인 황무지였다. 사람들은 사냥과 물고기잡이, 나무열매를 따서 먹으며 살아가고있었다.

일본사람들은 아직도 신석기시대에 살고있었던것이다.

이러한 때 진국을 비롯한 고대 조선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갔다.

낯선 땅에 건너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나갔다.

그들은 청동이나 철로 만든 보습으로 갈대무성한 황무지를 갈아엎고 벼를 비롯한 여러가지 곡식을 심었다.

가을이면 거두어들인 곡식을 이웃에 사는 일본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일본사람들은 희한하고 놀랍기만 하였다.

봄에 뿌린 한줌의 씨가 이렇게 많은 량으로 불어난다는것을 아직도 모르고있었던것이다. 그들은 조선사람들을 찾아와 농사짓는 법을 배우고 벼종자를 비롯한 곡식종자를 가지고 가서는 씨를 뿌렸다. 이렇게 되여 일본사람들은 농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돌로 만든 로동도구를 가지고 농사를 짓자니 힘이 들었다.

그때까지도 일본사람들은 금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조선사람들은 그들에게 광석을 찾는 법, 그것을 부스러뜨리고 가루내여 로에다 넣고 녹이는 법, 녹인 쇠물을 주형(거푸집)에 부어 식히면 보습이나 삽 등을 만들수 있다는것을 친절하게 가르쳐주었다.

일본사람들은 이렇게 조선사람들의 덕으로 금속으로 만든 도구를 쓰면서 농사를 짓게 되였다.

금속을 사용하면서 농사짓던 이 시기를 일본에서는 야요이시대라고 하며 이 시기 문화를 야요이문화라고 부른다.

야요이문화란 B.C.3세기부터 A.D.3세기까지 조선사람들의 영향밑에 생겨난 금속사용시대의 농경문화를 말한다.

일본에서는 야요이문화시기의 유적들이 수많이 발견되였다.

유적들에서는 쇠도끼를 비롯한 여러가지 로동도구, 무기가 나왔는데 그 모양이 진국을 비롯한 우리 조선사람들이 만든것과 신통히도 같다.

유적들에서는 불에 탄 벼알도 나왔는데 벼알의 생김새가 남경유적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여러 유적들에서 나온 벼알과 같다.

이와 같이 고대 우리 선조들은 일본땅에 건너가 일본의 력사와 문화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제3장. 봉건사회, 첫 봉건국가들

제1절. 강성대국 고구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의 우리 나라 력사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강하였던 시기는 고구려시대였습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 력사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강하였던 시기는 고구려시대였다.

고구려는 B.C.277년부터 668년까지 거의 1 000년동안 강성대국으로서의 위력을 떨쳤다.

1. 고구려의 성립

1) 고주몽의 출생과 성장

고주몽은 B.C.298년 부여에서 태여났다.

아버지는 해모수였는데 그는 당시 소국의 통치자였다.

어머니 류화는 부여왕실에서 높은 대우를 받으며 살았다. 부여왕은 해모수와 류화의 가문이 다 지방에서 강한 세력을 가지고있었기때문에 류화를 왕궁에서 살게 하였던것이다.

주몽은 이렇게 세력이 큰 가문에서 태여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힘도 세고 남달리 영특하였다.

나이 겨우 7살에 활쏘기명수로 되였는데 부여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하였다.

주몽은 부여왕의 아들들과 함께 놀며 자랐다.

그때 부여왕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재주가 주몽만 못하였다.

주몽의 어머니 류화는 어엿한 아들을 보면서 대견하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안하였다. 부여의 왕자들이 주몽을 죽이려고 하였기때문이였다.

류화는 주몽이 부여왕실을 뛰쳐나가도록 도와주었다.

주몽은 자기를 따라나선 오이, 마리, 협보 세 사람과 함께 떠났는데 부여군사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따라왔다.

주몽은 신비한 재주로 추격에서 벗어나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구려땅에 자리잡았다.

2) 고구려의 성립과정

주몽이 구려에 온 후 많은 사람들이 주몽을 따라나서 그의 세력은 점점 강해졌다.

이때 주몽은 구려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말갈족을 들이쳐서 굴복시키였다.

온 구려땅에 주몽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주몽은 구려의 한개 지역을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되였다.

구려왕은 주몽과 자주 만나 나라일을 의논하는 과정에 주몽을 더욱 신임하게 되였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던 구려왕은 장부다운 체격과 뛰여난 재주를 가진 주몽을 사위로 삼고 그를 적극 내세웠다. 얼마후 구려왕이 병으로 죽고 주몽이 왕이 되였다.

당시는 노예들의 폭동이 그칠새없이 일어나고 지방의 관리들이 저마다 힘내기를 하여 많은 소국들이 생겨나고있었다. 이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주몽은 노예소유자국가보다 발전된 봉건국가를 세웠으며 소국들을 하나하나 복종시켜나갔다.

주몽은 귀족들의 모임을 열고 나라이름을 고구려로 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이렇게 봉건국가 고구려는 B.C.277년에 주몽에 의하여 세워졌다.

고구려의 첫 수도는 졸본이였다.

주몽은 이때 자기의 성도 높을 고자를 붙여 고주몽이라고 하였고 왕의 칭호를 동명왕이라고 불렀다.

동명왕은 그후 많은 소국들을 통합하여 령토를 더욱 넓혀나갔다.

2. 고구려의 강성

1) 상무기풍과 군사력

상무기풍이란 무술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세우는 기풍이다. 다시말하여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이다.

고구려가 거의 1 000년동안 강한 나라로 세상에 소문난것은 바로 고구려사람들속에서 상무기풍이 높았기때문이다.

고구려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의무적으로 무술을 배웠다.

아이들은 공부하러 갈 때에도 칼과 활을 가지고다니면서 열심히 무술을 련마하였다.

고구려사람들은 놀이나 경기를 하여도 무술을 익히는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3월 3일과 10월에 국가적으로 사냥경기가 진행되였는데 왕과 관리들까지 나와서 구경을 하였다.

1등을 한 사람에게는 높은 벼슬과 많은 상을 주었다.

평민출신인 온달은 사냥경기에서 우승하고 군사지휘관으로 등용되여 조국방위에서 큰 공을 세웠다.

고구려봉건국가에서는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고 글을 잘 안다고 하여도 무술에 능하지 못하면 중앙이나 지방의 관리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구려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무술을 익히고 몸을 튼튼히 단련하였기때문에 외적이 쳐들어오면 저저마다 싸움터로 달려나가 큰 공을 세웠다. 그러므로 고구려시기의 많은 소년장수들과 애국명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옛날 력사책들에 자세히 실려있다.

무덤의 벽화들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많다.

고구려시기 벽화들에는 여러개의 목표판을 세우고 활을 쏘거나 산과 들에서 사냥하는 모습, 태권도동작 등이 형상되여있다.

고구려는 군사력이 강하여 나라를 세운 후에 령토를 부단히 넓혀 옛 고조선, 부여지역까지 거의 다 차지하였다.

고구려에는 애국심이 높고 무술에 능한 사람들로 무어진 30만의 군대가 있었다.

고구려사람들은 외적의 침입을 알리는 봉수대의 불길이 오르면 모두가 군사가 되여 스스로 싸움터로 달려나가군 하였다.

한편 고구려에서는 견고한 성을 리용하여 침략자들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고구려에서는 변경으로부터 수도에 이르는 사이에 많은 성을 건설하였다. 적들이 쳐들어올수 있는 주요 길목마다 건설하였기때문에 놈들은 성을 점령하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갈수 없게 되여있었다.

성은 매우 크고 튼튼하게 쌓았으므로 아무리 많은 적들이 성을 포위하고 달려들어도 성문만 굳게 닫고 지키면 능히 적의 공격을 막아낼수 있었다. 고구려에는 평양성, 대성산성, 랴오둥성을 비롯하여 무려 수백개의 성이 있었다.

2) 덕흥리벽화무덤과 광개토왕릉비

주체65(1976)년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리에서 고구려벽화무덤이 발견되였다.

무덤칸의 벽에는 고구려의 유주자사가 13군 태수로부터 차례로 사업보고를 받는 그림이 그려져있다. 또한 408년에 이 무덤을 만들었다는 글까지 씌여있다.

무덤의 벽화와 거기에 씌여진 글자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수 있다.

우선 고구려가 랴오둥지방을 차지한 이후 370년대에 만리장성을 넘어 오늘의 베이징부근까지 진출하였다는것이다.

또한 고구려는 차지한 지역을 관할하기 위하여 유주라는 지방행정단위를 설치하고 진이라는 사람을 유주의 제일 높은 관리인 자사로 임명하였다는것이다.

유주자사는 2 000여리에 달하는 넓은 지역을 관할하였는데 그 중심지는 오늘의 베이징부근이였다.

유주는 13개의 군으로 이루어졌다. 군의 장관인 태수들은 정상적으로 유주자사에게 사업보고를 하였다.

덕흥리벽화무덤은 고구려가 서쪽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고구려의 강성력사는 광개토왕릉비에도 깃들어있다.

412년 어느날 20여년간 고구려의 왕으로 있던 고담덕이 38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맏아들이 왕(장수왕)자리에 올랐다.

장수왕은 며칠후 아버지의 시호를 어떻게 달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관리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시호는 옛날에 왕이 죽은 다음 본래이름밖에 그의 공적이나 성격상특징 등을 고려하여 붙이는 다른 이름이다.

장수왕에게 잘 보이려는 많은 관리들이 죽은 왕의 공적을 찬양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들은 후부여와 백제, 신라를 들이쳐 고구려에 복종시킨 이야기, 바다를 건너 침략해온 왜군들을 전멸시키던 이야기 등 용감한 고구려군대와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이룩된 성과를 모두 왕의 공적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하여 령토를 넓힌 왕의 공적을 담아 시호를 《광개토왕》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장수왕은 그후 석공들을 동원하여 비석을 크게 만들게 하였다.

비석의 네 면에는 땅을 넓힌 왕의 공적을 알수 있게 1 800여자로 된 글을 새겼다.

비석은 높이가 6.34m, 한 면의 너비는 평균 1.94m이다.

비석은 광개토왕의 무덤앞에 세워졌다.

이러한 큰 비석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다.

414년에 세워진 광개토왕릉비는 지금 고구려의 두번째 수도였던 집안(중국 지린성 지안시)에 있다.

3. 세나라를 통일하기 위한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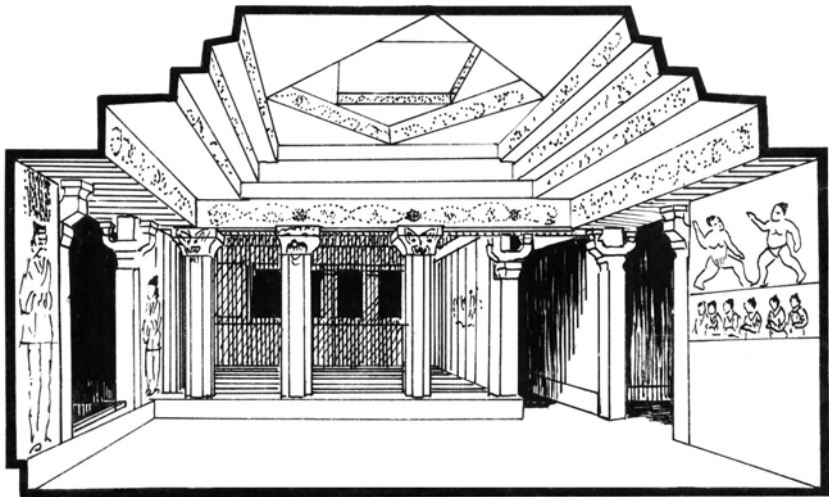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고구려는 오래전부터 삼국의 통일을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웠으며 삼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주변나라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합하여 힘있게 밀고나갔다.》

고구려는 삼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1) 고국원왕릉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리에 고구려 21대왕인 고국원왕의 무덤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발견된 고구려벽화무덤가운데서 제일 크다. 무덤의 직경은 30m이며 높이는 약 6m이다. 무덤은 5개의 칸과 긴 복도로 이루어졌는데 벽에는 여러가지 그림이 그려져있다.

고국원왕릉의 내부

왕이 죽으면 수도나 그 가까이에 묻는것이 보통일인데 어떻게 되여 고국원왕의 무덤은 수도와 멀리 떨어진 이곳에 자리잡고있는가.

여기에는 그럴만 한 사연이 있었다.

고국원왕은 어느날 남부전선에 파견하였던 한 관리로부터 전선의 위급한 정황을 보고받았다.

백제와 신라는 저들의 령토를 넓히기 위하여 고구려의 남부변경을 넘어 자주 쳐들어오군 하였다.

특히 백제는 많은 군사를 동원하여 오늘의 황해남도일대로 쳐들어와 적지 않은 땅을 타고앉았다.

관리의 보고를 받고난 왕은 즉시 대책을 세웠다. 고국원왕은

전선과 가까운 곳에 부수도를 건설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오늘의 황해남도 신원군일대에 장수산성이 건설되고 남평양으로 불리우게 되였다.

그리고 왕이 직접 남평양으로 가서 싸움을 지휘하였다.

371년 10월 백제는 3만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남평양을 불의에 공격하였다. 고구려군사들은 인원이 비록 적었지만 용감히 싸워 백제군을 물리쳤다.

그런데 전투를 지휘하던 고국원왕이 백제군사가 쏜 화살에 맞고 전사하였다.

치렬한 싸움이 계속되는 때여서 왕의 시체를 수천리 떨어진 수도 지안에까지 옮겨갈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부수도와 가까운 안악군에 무덤을 크게 건설하고 고국원왕을 묻었다.

2) 평양천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고구려는 일찌기 평양에 삼국통일을 위한 거점을 꾸리였고 427년에 이곳으로 수도를 옮겨왔습니다. 평양천도는 삼국시기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서 중요한 사변으로 되였습니다.》

고구려는 427년에 수도를 오늘의 중국 지안으로부터 평양으로 옮겼다.

조선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이 태여났고 고조선의 수도로 3 000년가까이 그 이름을 떨쳐온 평양은 사방 수천리의 넓은 령토를 가진 강성대국의 수도로 될만 한 더없이 적당한 곳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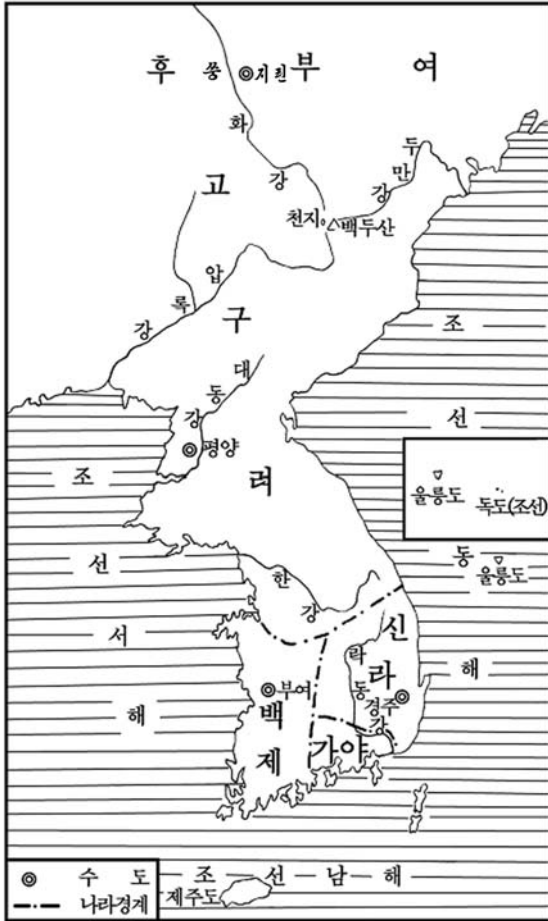
삼국통일을 나라의 기본정책으로 내세운 고구려가 남방진출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도 수도를 옮기는것이 필요하였다.

평양천도이후 고구려의 삼국통일정책은 성과적으로 실현되여 백제와 신라의 많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였다.

고구려는 평양성건설을 크게 벌리고 왕궁을 지었으며 수도방어성인 대성산성을 더욱 튼튼히 꾸리였다.

이와 함께 시조왕 동명왕의 무덤도 오늘의 평양시 력포구역 룡산리에 옮기였다.

3) 중원고구려비

충청북도 중원군(충주시)에서 고구려사람들이 세운 비석이 발견되였다. 비석은 5세기말 고구려의 령토가 남쪽으로 충주이남지방까지 아주 넓어졌다는것을 보여준다. 비석이 발견된 지명을 붙여 중원고구려비라고 한다.

첫 봉건국가들의 위치

높이가 2.03m, 너비는 약 0.5m, 두께는 약 0.4m이다. 네 면에 새겨진 글내용은 고구려의 장수왕(413년-491년)때에 백제, 신

라를 공격하여 남쪽으로 령토를 넓힌 사실을 밝히고있다.

고구려는 6세기 중엽에 남쪽으로 조선서해의 아산만과 조선동해의 청하계선까지의 령토를 차지하였다.

이때 고구려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가장 넓은 령토를 가진 나라로 되였다.

서쪽으로는 중국의 다링하계선, 북쪽으로는 쑹화강일대가 경계로 되여있었다.

이때 세나라의 총면적이 약 62만km^2였는데 그중 고구려는 세나라가 차지하고있는 총면적의 90％이상을 차지하고있었다.

백제와 신라는 남쪽의 좁은 지역을 차지하고있었다.

고구려는 이렇게 령토를 확장하면서 국토통일을 더욱 다그쳐나갔다.

4. 고구려－수, 당전쟁

1) 고구려－수전쟁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구려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되고 무술을 배웠으며 용감성으로 단련되였기때문에 높은 민족적긍지와 씩씩한 기상을 지닐수 있었으며 아세아대륙에서 가장 큰 나라였던 수나라의 300만 대군의 침습을 물리치고 나라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있었습니다.》

(1) 수나라의 전쟁도발

612년 1월 전 중국땅을 차지하고 강대국이라고 뽐내던 수나라가 300만의 대병력으로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수나라군의 행군대오는 길이가 무려 1 040여리, 대오가 모두 출발하는데는 40일이 걸렸다.

바다에서는 수백척의 함선이 고구려를 단숨에 집어삼킬듯 한 기세로 출동준비를 갖추고있었다.

598년 고구려에 100만명이나 침입시켰다가 대참패를 당하였으

니 이번에는 기어이 이겨보겠다고 300만이나 동원시켰던것이다.

고구려를 지켜내는가 아니면 수나라의 노예가 되는가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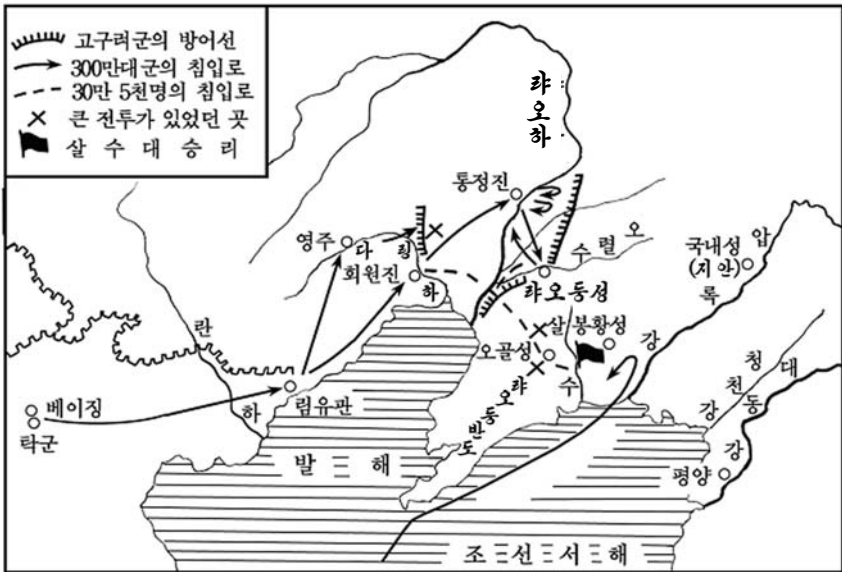
고구려의 애국명장 을지문덕은 애국심이 높은 수십만의 군사들과 길목마다 쌓아놓은 든든한 성들에 의거하여 옳은 전략과 전술을 쓴다면 무서울것이 없다고 타산하였다.

지휘부는 압록강 서북쪽에 있는 봉황성에 있었다.

(2) 랴오둥성전투

랴오둥성은 랴오하동쪽에 있는 고구려의 국경을 지키는 성으로서 크고 견고하였다.

랴오둥성전투는 612년 4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100여일간에 걸쳐 진행되였다.

수많은 희생을 내면서 한달만에 랴오하를 건너온 적들은 랴오둥성에 달려들었다. 수십만의 적들이 겹겹이 포위한 랴오둥성은 마치도 사람바다우에 솟은 섬같았다.

고구려－수전쟁도

수나라침략자들은 충차, 포차를 비롯한 여러가지 성공격수단을 가지고 검질기게 공격하였으나 성은 끄떡없었다.

고구려군사들은 밤이 되면 성문을 열고나가 적진지를 습격하여 놈들이 제대로 자지도 못하게 하였다.

싸움에서 계속 패하자 수나라왕 양제가 직접 전투를 지휘하였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고구려를 단숨에 점령하려던 수양제의 계획은 파탄되였다.

(3) 봉황성전투

수양제는 어떻게 하나 침략목적을 달성하려고 별동대를 조직하였다.

이리하여 30만 5 000여명의 별동대가 고구려군사들과의 전투를 피하면서 타이쯔하(압록수)하류로 밀려들기 시작하였다.

이때 수양제는 수백척의 함선에 나누어타고 대기하던 수군도 같이 출발하게 하였다.

별동대와 수군은 고구려의 왕과 지휘부가 있는 봉황성에서 만나 성을 공격하기로 되여있었다. 고구려왕을 사로잡아 항복을 받아내려는 심산이였다.

봉황성가까이에 도착한 4만여명의 수군은 별동대가 오기를 기다렸으나 며칠이 지나도 나타날줄 몰랐다.

적수군대장은 별동대를 더 기다리지 않고 수군 혼자힘으로 성을 점령함으로써 높은 벼슬자리와 명예를 독차지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수군만을 봉황성공격에로 내몰았는데 고구려군사들에 의하여 무리죽음을 당하였다.

륙군과 수군이 협동하여 봉황성을 점령하려던 수양제의 수륙병진작전은 파탄되였다.

(4) 살수전투

살수는 오늘의 중국 랴오둥에 있는 강을 말한다.

봉황성서쪽에 자리잡고있는 강인데 옛날에는 살수라고 불렀다.

여기에서 고구려군사들은 수십만의 수나라침략군을 통쾌하게 전멸시킴으로써 고구려의 군사적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을지문덕장군은 612년 7월초 적별동대가 기여들자 놈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식량, 말먹이, 소금 등을 다 성안에 옮기게 하였다. 적들에게 아무것도 넘겨주지 않으려는 계책이였다.

이런 전술을 《청야전술》이라고 한다.

고구려군은 미리 세워진 계획에 따라 하루에 일곱번 싸우고 일곱번 못견디는척 하면서 후퇴를 거듭하였다.

어리석게도 적들은 고구려군이 약하다고보면서 봉황성 30리부근까지 끌려들어왔다.

적들은 여기서 저들의 수군이 이미 완전히 녹아났다는것을 알고 을지문덕장군의 전술에 속았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이러한 때에 적장 우중문은 을지문덕장군이 보낸 편지 한통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시 한수가 적혀있었다.

신통한 전략은 천문을 꿰뚫었고
기묘한 전술은 지리를 통달했네
싸움에서 이겨 공로가 이미 높거니
만족함을 알고 돌아감이 어떠하리

자기를 야유하는 시를 받아본 우중문은 이것을 구실로 퇴각명령을 내렸다.

적별동대는 줄행랑을 놓아 도망쳤으나 무서운 타격이 있으리라는것은 생각도 못하였다.

을지문덕장군의 계책에 따라 수많은 고구려군사들이 살수주변에 매복하여 적들을 기다리고있었다.

적들이 강을 절반쯤 건넜을 때 고구려군은 마침내 드센 공격을 들이대였다.

을지문덕

화살이 우박치듯 적들의 머리우에 쏟아지고 창과 칼이 번쩍이였다.

이 싸움에서 별동대 30만 5 000명이 거의다 죽고 2 700명만 이 살아 겨우 도망쳤다.

우리 인민은 이 전투를 살수대첩(살수에서의 큰 승리)이라고 부르며 대대손손 자랑스럽게 전해오고있다.

살수에서 별동대가 완전히 녹아난 소식을 듣고 겁에 질린 수양제는 황급히 살아남은 놈들을 끌고 자기 나라로 도망치고말았다.

수나라침략자들은 그후에도 두차례나 고구려에 침략하여왔지만 그때마다 큰 참패만 당하고 쫓겨갔다.

2) 고구려－당전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고구려인민들은 70년동안이나 수나라와 당나라의 대규모적이고 집요한 침략을 격퇴하고 나라의 존엄과 독립을 지켜냈다.》

고구려인민들은 수나라에 이어 침입해온 당나라의 대규모적인 침략을 격퇴하고 나라의 존엄과 독립을 지켜냈다.

(1) 당나라의 침략책동

618년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섰다.

당나라통치배들도 고구려를 정복하려고 전쟁준비를 다그치는 한편 고구려통치배들을 위협하여 굴복시키려고 책동하였다.

당나라왕은 고구려에 사신을 파견하여 침략적인 요구조건을 내놓았다.

그 내용을 보면 봉황성전투에서 죽은 수군의 해골을 찾아 제사를 지내라는것, 고구려에서 건설한 경관을 허물어버리라는것, 나라의 지형을 그린 지도를 넘겨보내라는것 등이였다.

경관은 고구려가 수나라와의 전쟁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건물이였다.

(2) 연개소문의 정변

642년 9월 고구려의 영류왕은 자기가 신임하는 관리들을 대궐로 불러들이였다.

신통히도 아첨기가 많고 당나라에 비굴하게 행동하던자들이였다.

왕과 신하들은 당나라에 맞설것을 주장하는 연개소문을 죽일 음모를 꾸미였다.

이것을 알고 격분한 연개소문은 미리 선손을 쓰기로 하였다.

그는 자기가 거느린 부대의 열병식을 조직하고 여기에 수많은 정부관리들을 초청하였다.

연개소문은 부대를 이끌어 열병식을 보러온 100여명의 정부관리들을 죽이고 이어 왕궁으로 달려가 비겁한 영류왕을 죽이였다.

그는 왕의 조카를 새 왕(보장왕)으로 올려앉힌 다음 자기는 막리지라는 최고벼슬을 차지하고 나라의 모든 권한을 틀어쥐였다.

연개소문은 왕궁에서 비굴하게 놀던 관리들을 모조리 내쫓았으며 당나라에 당당하게 맞서나갔다.

한편 당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천리장성공사를 더욱 다그쳤다.

(3) 안시성전투

안시성전투는 645년 4월부터 9월사이에 진행된 고구려－당전쟁시기에 있은 가장 크고 치렬한 전투였다.

당태종은 100만명의 수군과 륙군을 끌고 단꺼번에 국경지역으로 쳐들어왔다.

6월 중순에는 안시성을 제외한 국경부근의 거의 모든 성이 놈들에게 점령되였다.

안시성까지 내여주면 고구려군사들은 멀리 후퇴해야 하였고 나중에는 당나라에 먹히울수 있었다.

침략자들은 랴오하하류에 있던 안시성을 겹겹이 포위하였다.

안시성에는 양만춘장군이 지휘하는 10만의 군사들이 있었다.

고구려군사들은 매일 6～7차례이상 적의 발악적인 공격을 물리쳤다.

적들이 성밖에 흙산을 쌓아올리면 성벽도 그만큼 높이 쌓고 나무울타리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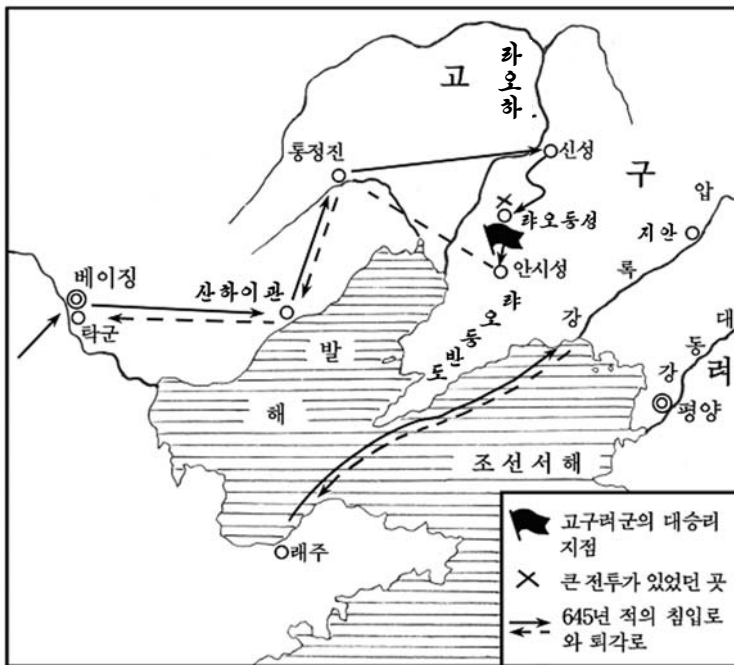
고구려군사들은 놈들의 흙산이 무너져 안시성의 한쪽모퉁이가

허물어진 위급한 순간 돌격전을 벌려 재빨리 흙산을 차지하였다.

이때 빼앗긴 흙산을 되찾기 위해 전투를 지휘하던 당태종은 고구려군사의 화살에 맞아 애꾸가 되였다.

적들은 88일간이나 되는 안시성싸움에서 끌내 참패하고 도망쳐버렸다.

그리하여 645년 고구려―당전쟁은 고구려인민의 승리로 끝났다.

당나라는 그후에도 647년과 648년에 많은 무력으로 고구려를 또다시 침략하였으나 그때마다 참패를 당하였다.

고구려―당전쟁도

3) 고구려의 멸망

강성대국으로 이름을 날리던 고구려는 668년에 멸망하였다. 강한 군사력, 넓은 령토, 언제가도 멸망할것 같지 않던 고구려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고구려말기의 력사는 나라의 통수체계와 방위체계가 마비되고 국내의 단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무리 강대한 국력을 가진 나라라 하더라도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수 없으며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666년에 애국명장 연개소문이 병으로 죽은 후 정세가 변하였다.

연개소문의 맏아들인 연남생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막리지가 되였다.

호랑이같던 연개소문이 죽자 움쩍도 못하고있던 통치배들이 높은 벼슬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개싸움을 벌렸다.

연남생을 끼고도는 놈들이 있는가 하면 연남생을 없애버리고 막리지가 되려는 놈들도 있었다. 그런 놈들은 연남생의 동생들을 부추기며 기회를 노리고있었다.

통치배들사이의 싸움은 걷잡을수 없이 번져갔다.

이렇게 되자 지방에 나가있던 연남생이 많은 군사를 데리고 당나라에 투항하였다.

연개소문의 동생이 또 12개 성에 사는 사람들을 데리고 신라에 넘어갔다.

그리하여 나라의 중요한 비밀이 드러나고 국가관리체계와 군사지휘체계가 헝클어졌다.

바로 이러한 때 령토를 넓히려고 기회만 노리고있던 신라통치배들이 당나라침략세력을 끌어들였다. 신라통치배들은 이미전부터 당나라를 등에 업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려고 책동하여왔었다.

신라의 요청을 받은 당나라는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고 고구려침략에 나섰다.

50만의 당나라침략군이 연남생을 길잡이로 평양을 향하여 기여들었다. 게다가 20만의 신라군이 남쪽에서부터 공격해왔다.

신라, 당나라련합군(라당련합군)에 의하여 평양성은 완전히 포위되였다. 성안의 군사들은 한달동안이나 희생을 각오하고 용감히 싸웠으나 비겁한 통치배들에 의하여 당나라에 투항

하고말았다.

고구려의 멸망은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고 하여도 내부가 분렬되고 투항변절자가 나타나 침략자와 손을 잡는다면 망할수밖에 없다는것을 교훈으로 보여주고있다.

5. 고구려의 문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로 빛나는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과학적창조와 발명으로써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크게 기여한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과학적창조와 발명으로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 천문도

고구려사람들은 5세기말-6세기초에 매우 정확한 석각천문도를 만들었다.

석각천문도란 돌에 새긴 별자리그림 즉 태양, 달, 별 등의 자리를 필요한 크기로 줄여 돌의 평면에 그린 그림을 말한다.

이 천문도에는 네모난 칸안에 커다란 원이 그려져있다.

원안에는 은하수가 강줄기처럼 ∩형으로 표시되고 1 467개의 별이 282개의 별자리에 표시되여있다.

원밖에는 별자리그림을 보는 법과 그것을 해설한 많은 글이 새겨져있다. 1395년에 이 천문도를 개작하여 《천상렬차분야지도》라고 이름을 달았다.

이 천문도는 세계적으로 제일 오래고 정확한 천문도이다.

고구려에서 640년에 태양흑점을 발견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놓은 사실은 천문현상을 관측하고 기록하는 사업이 국가적으로 진행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평양성에 있던 천문대에서는 천문현상을 정상적으로 관측하였

으며 그것만을 말아보는 관리까지 있었다.

유럽에서는 17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이딸리아의 천문학자인 갈릴레오에 의하여 처음으로 태양흑점이 발견되였다.

2) 안학궁과 대성산성

안학궁은 고구려가 427년에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면서 건설한 왕궁이였는데 지금은 그 터만이 남아있다. 평양시 대성구역 안학동의 대성산 남쪽기슭에 자리잡고있었다.

안학궁은 한 변의 길이가 622m인 바른4각형의 모양을 가진 토성으로 둘러싸여있었는데 총 면적은 38만m^2이다.

그안에는 길이 87m, 너비가 27m나 되는 궁전을 비롯하여 52개의 크고작은 건물이 있었다.

또한 인공적으로 만들어놓은 여러개의 못과 산이 있었다.

그리고 성안에는 남쪽에 3개, 동, 서, 북쪽에 각각 1개씩의 성문이 있었다.

성벽밖에는 해자(큰 물도랑)를 파서 적들이 성벽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안학궁은 왕과 통치배들을 위하여 건설한것이지만 거기에는 고구려인민들의 뛰여난 건축기술이 깃들어있다.

대성산성은 안학궁 바로 뒤에 있는 수도성으로서 고구려의 대표적인 산성이다.

성벽의 총 길이는 9 284m이다. 을지봉을 중심으로 소문봉, 장수봉, 국사봉, 북장대, 주작봉 등 6개의 봉우리를 련결하여 쌓았다.

성안에는 식량창고, 무기고, 병실 등 많은 건물들이 건설되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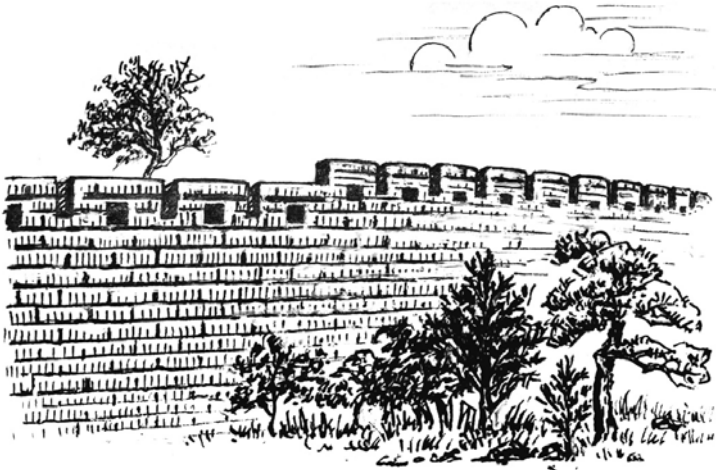
또한 잉어못을 비롯하여 99개의 못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만큼 물이 많았다는것을 말해준다.

적들이 기여들기 쉬운 남쪽기슭에는 성을 2중으로 쌓고 남문을 건설하였는데 오늘 원상대로 복구되여 그 면모를 보여주고있다.

왕을 비롯한 관리들은 평시에는 안학궁에 있다가 외적의 침입이 있게 되면 대성산성에 들어가 피신하였다.

대성산성은 고구려산성들중에서 가장 크고 견고하게 쌓은 성의 하나이다.

고구려는 그후 평양시 중심부에 평양성을 쌓고 586년에 수도를 이곳으로 옮겨왔다.

평양성은 모란봉으로부터 시작하여 동쪽으로는 대동강, 서쪽으로는 보통강기슭을 쭉 에돌아가며 쌓았는데 총 길이는 약 23km나 되였다.

대성산성 성벽

성안은 크게 외성, 중성, 내성, 북성 등 4개 구역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는 큰 길들이 가로세로 곧게 뻗어있고 그옆에는 궁전, 관청, 절간 등을 비롯한 크고작은 건물들이 있었다.

성에는 보통문, 대동문을 비롯한 수십개의 크고작은 문들이 있었다.

3) 동명왕릉

평양시 력포구역 룡산리에는 고구려 시조왕의 무덤인 동명왕릉이 있다.

동명왕릉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웅장하게 개건되였다.

왕릉은 돌칸흙무덤으로서 한 변의 길이는 34m이고 높이는 11.5m이다. 무덤안은 한칸으로 되여있다.

왕릉앞에는 사람, 범, 말 등 여러가지 돌조각상들이 세워져있다.

왕릉의 오른쪽앞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동명왕을 위하여 지은 정릉사라는 절간도 있다.

동명왕릉의 릉문

개건된 동명왕릉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민족의 력사가 찬란히 빛나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이다.

4) 강서세무덤과 벽화

강서세무덤은 남포시 강서구역 삼묘리에 있는 고구려시기 무덤이다.

세개의 무덤이 나란히 있다고 하여 이것을 강서세무덤이라고 한다.

잘 가공한 돌로 칸을 만들고 천정을 덮은 다음 그우에 흙을 덮었다.

무덤의 벽에는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킨다는 청룡(푸른 룡), 백호(흰 범), 주작(붉은 새), 현무(검은 거부기와 뱀) 등 환상적인 동물을 그렸다.

이것을 사신도라고 한다.

이 그림들은 1 000년이상이나 지난 오늘에도 색이 얼마나 선명한지 옛날 그림 갈지 않다.

고구려의 벽화무덤은 지금까지 90여기나 발견되였다.

강서세무덤의 벽화는 세계적인 걸작품으로 높이 평가되였으며 고구려사람들의 훌륭한 그림솜씨를 잘 보여주고있다.

5) 《온달전》

《온달전》은 고구려사람들이 창작한 고전소설이다.

《온달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달은 일찌기 아버지를 잃고 눈먼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너무도 가난하여 다 해진 옷차림으로 늘 밥을 얻으러 다녔으므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온달》이라고 불렀다.

이때 고구려의 평강왕에게는 울기 잘하는 어린 딸(공주)이 있었는데 왕은 입버릇처럼 《바보온달》에게나 시집을 보내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공주가 시집갈 나이가 되자 왕은 그를 귀족집안에 시집보내려고 하였다.

이때 공주는 보통사람도 아닌 임금이 어찌 거짓말을 할수 있는가고 하면서 끝내 왕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하여 왕궁에서 쫓겨난 공주는 온달을 찾아가 사연을 말하였다.

온달은 처음에 공주의 말을 믿지 않다가 공주의 진심을 알자 마침내 그와 가정을 이룬다.

그후 온달은 꾸준히 무술을 련마하여 국가적인 사냥경기에서 1등을 한다.

그는 고구려의 장군이 되여 외적과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며 세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한다.

《온달전》은 고구려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술에 능하였으며 사

람을 평가하고 내세우는데서 무술과 지혜, 용맹이 얼마나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았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고구려시기에는 고전소설뿐아니라 전설, 설화, 시 등 훌륭한 문학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였다.

대표적인 작품들로서는 설화 《을지문덕이야기》, 《록족부인전설》, 시 《우중문에게》 등을 들수 있다.

6) 왕산악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선조들은 좋은 곡들도 많이 만들었으며 그것을 훌륭히 연주하였습니다.》

왕산악은 고구려의 재능있는 이름난 음악가였다.

그는 거문고라는 악기를 잘 타서 세상에 이름을 날렸다. 그가 거문고를 탈 때에는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흥겨웠던지 날아가던 학들이 내려와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고 한다.

왕산악은 많은 노래를 지었는데 그 수는 100여곡이 넘었다.

용맹하면서도 락천적인 고구려사람들은 평상시에도 그러했지만 간고한 싸움이 벌어지는 속에서도 언제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용기백배하여 침략자들을 쳐부셨다.

후부여

후부여는 B.C.2세기초에 고대부여(부여)를 계승하여 세워졌다.

고대부여는 B.C.219년에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한 후 고구려에 예속되였다.

그러나 부여는 고구려의 직접적인 통제밑에 들어간 남쪽의 일부 지역을 내놓고는 넓은 지역을 통치하면서 독자적인 봉건국가로 발전하였다.

이 부여를 고대부여와 구별하기 위하여 후부여라고 부른다.

수도는 처음에 지린부근에 그대로 두었다가 후에 지린성부근으로 자리를 옮겼다.

후부여는 A.D.2세기 중엽에 비교적 큰 종족의 하나였던 읍루족(연해주일대)을 정복하여 넓은 지역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후부여의 국력이 상당히 강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후부여의 령역은 쑹화강류역을 중심으로 한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있었다.

후부여사람들은 창조적로동을 통하여 농업과 수공업, 집짐승기르기를 발전시켰다. B.C.2세기이후 봉건통치질서가 정비되고 군사력도 강화되였다.

후부여는 3세기말이후 두차례의 외래침략을 받은 후 약화되여 동부여와 북부여로 갈라졌다.

그후 346년 후부여(서쪽 부여)는 외래침략으로 붕괴되였다. 이때 고구려가 곧 그 지역을 차지하고 북부여까지 통합하였다.

고구려는 계속하여 광개토왕시기인 410년에 동부여통합사업을 추진하여 속국으로 만들었다. 그후 국가의 명맥을 더는 이어 갈수 없게 약화된 동부여가 494년에 고구려에 통합되여 후부여는 자기의 존재를 끝마쳤다.

제2절. 백 제

1. 동명왕의 아들 온조와 백제의 성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조이야기는 백제도 고구려에서 갈라져나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라는것을 말하여줍니다.》

백제는 고구려에서 갈라져나온 사람들이 세운 같은 겨레의 나라였다.

그것을 말해주는 온조이야기가 있다.

동명왕이 나라를 세운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아들이 태여났다.

맏이는 비류, 둘째는 온조였다.

비류와 온조는 의좋게 자라났다.

그러던 어느날 동명왕이 부여에서 살 때 낳은 아들 유류가 찾아왔다.

동명왕은 몰라보게 자란 유류를 대견하게 바라보며 품에 안아주었다.

그후 유류는 태자(왕의 뒤를 이을 아들)로 되였다.

비류와 온조는 유류가 온 다음부터 아버지가 자기들을 멀리 대하는것만 같아 우울하게 지냈다.

드디여 그들은 떠날것을 결심하고 10여명의 신하들과 함께 남쪽지방으로 옮겨왔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 나섰다.

일행은 오늘의 서울지방에 이르러 자리를 잡고 성을 건설하고 농사도 지었다.

온조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힘이 점차 강해지자 B.C.3세기 중엽 백제봉건소국을 세웠다.

한편 다른 지방으로 갔던 비류는 자기의 행동을 후회하다가 병들어 죽었다.

백제봉건소국은 한강, 례성강류역을 중심으로 점차 주변의 소국들을 통합하고 나중에는 마한이 있던 지역까지 차지하여 B.C.1세기 초중엽에 완전한 봉건국가로 되였다. 첫 왕은 구태였다. 백제의 수도는 처음에 한성이였으나 그후 웅진, 부여로 두번씩이나 옮겼다.

2. 이름난 저수지－벽골제

전라북도 김제시에 백제사람들이 건설한 벽골제라고 하는 저수지가 있었다.

얼마나 큰지 물이 가득차면 하나의 큰 호수와 같았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벽골제를 기준으로 그 남쪽지방을 호남지방이라고 불러온다.

벽골제는 330년에 건설되였는데 뚝의 높이는 약 4m이고 둘레는 무려 12km나 되였다.

수만정보에 달하는 기름진 논과 밭을 가진 백제 중부이남지방에서 농사를 안전하게 짓기 위하여 저수지건설을 크게 벌렸다.

그리하여 백제인민들은 모진 고생을 참고 견디면서 이 저수지를 건설하였다.

벽골제의 건설은 백제인민들의 로동에 대한 근면성, 슬기와 재능과 함께 당시 농업을 비롯한 경제발전모습을 보여주고있다.

3. 백제의 멸망

660년 7월 수도 가까이에 자리잡은 황산벌에서는 백제와 신라사이에 큰 격전이 벌어졌다.

백제군사를 지휘한 사람은 계백장군이였다.

7세기 중엽 백제는 봉건통치배들의 부화방탕한 생활로 나라의 형편이 어지러워지고 방위력도 점점 약해졌다.

신라와 당나라의 수십만대군이 당장 쳐들어오는데도 봉건통치배들은 옳은 방책을 내놓지 못하였다.

귀양살이하던 흥수라는 관리가 적의 공격을 막아낼 애국적인 제의를 하였지만 왕은 그것을 믿을수 없다고 무시해버리였다.

백제봉건통치배들이 말공부만 하는 사이에 13만의 당나라침략군이 배를 타고 금강으로 거슬러올라왔고 5만명의 신라군이 사비성으로 공격해왔다.

계백장군은 이러한 정황에 대처하여 군사 5 000명을 뽑아 결사대를 무었다.

백제군사들은 황산벌에 진을 치고 적과의 싸움을 벌리였다.

그들은 수적으로 10배나 되는 5만명의 신라군사들의 공격을 네차례나 물리쳤으며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웠다.

사비성이 점령되자 왕은 공주로 도망쳤다.

이때 왕궁에 남아있던 궁녀들은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백마강(금강의 중류)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차라리 스스로 죽을지언정 남의 손에 죽지 않는다》

고 하면서 서로 부둥켜안고 강물에 몸을 던졌다.

후세사람들은 궁녀들을 꽃에 비겨 그들이 떨어져죽은 바위를 꽃이 떨어진 바위라는 뜻으로 락화암이라고 불렀다.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계백장군의 애국심 그리고 나라의 운명과 함께 깨끗하게 최후를 마친 궁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인민들속에 오래도록 전해오고있다.

4. 백제의 문화

1) 칠지도와 무늬벽돌

백제에서는 수공업기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그것은 백제기술자들이 만든 칠지도를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칠지도는 길이가 약 75cm인 칼이다.

칼몸 량쪽에는 3개씩의 가지날이 서로 엇갈려 돋쳐있다. 칼몸까지 모두 7개의 날이 있는 칼이라고 하여 칠지도라고 한다. 칼에는 모두 61자의 글이 새겨져있다.

글에는 408년에 100번이나 단조한 쇠로 이 칼을 만들었다는것과 모든 무기중에서 칠지도가 으뜸이니 왜왕에게 줄만 하다는것, 이전에는 이런 칼이 없었으니 왜왕은 이 칼을 잘 보존하여 길이길이 전하라는 내용이 밝혀져있다.

백제왕은 자기에게 잘 복종하는 왜왕에게 이 칼을 선물하였다.

지금도 이 칼은 일본에 보관되여있다.

칠지도는 백제의 철가공기술과 금속공예술을 잘 보여준다.

한편 백제의 유물들중에서 특이한것의 하나는 무늬새긴 벽돌이 많은것이다.

백제는 세나라가운데서 벽돌을 가장 많이 만들어썼다.

백제에는 와박사라는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벽돌, 기와 만드는것을 전문으로 하는 기술자를 의미하였다.

일본에서는 백제의 와박사를 초청해다가 그들의 기술적지도밑에 벽돌과 기와를 만들었다.

백제에서 벽돌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썼는가 하는것은 공주에서 발견된 무녕왕의 무덤이 잘 말해준다.

한개 무덤을 만드는데 5만여매의 벽돌을 썼으니 백제에서의 벽돌생산정형을 짐작할수 있다.

련꽃무늬, 나무우거진 산과 그속에 아담하게 서있는 집을 새긴 무늬, 불길모양의 무늬, 꽃잎과 나무잎무늬, 날아오르는 룡을 새긴 무늬, 괴상한 짐승을 새긴 무늬 등 수십가지의 무늬를 새긴 벽돌은 참으로 훌륭하다.

이러한 벽돌로 지은 집이나 탑, 무덤은 든든하면서도 매우 아름답게 보였다.

2) 정림사 5층탑

백제의 마지막수도였던 충청남도 부여에 정림사 5층탑이 있다.

정림사라는 절간에 세웠던 4각 5층으로 된 돌탑이다.

탑은 화강석을 잘 다듬어 쌓았는데 아래단과 5층으로 된 탑몸, 탑머리로 이루어졌다. 높이는 8.33m이다.

탑몸의 매층은 집지붕처럼 가공한 돌을 올려놓았다. 그리하여 탑은 크기가 차례로 작아지는 5개의 집을 올려쌓은것처럼 보인다.

우로 올라가면서 크기를 적당히 줄였기때문에 균형이 잡혀 매우 안전하게 보인다.

정림사 5층탑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리 나라의 탑들중에서 제일 오래된것으로 유명하다.

3) 소설 《도미와 그의 안해》

백제인민들은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현재 전해지고있는 소설, 설화, 시작품들은 백제인민들의 높은 문화적재능을 보여주고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것은 소설 《도미와 그의 안해》이다.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미와 그의 안해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다정한 부부였다.

도미는 신분이 낮았으나 대가 바르고 의리가 깊은 사람이였다. 그의 안해는 매우 곱게 생긴데다가 품성이 단정하고 자기 남편을 극진히 생각하는 녀성이였다.

그들 부부에 대한 소문은 사람들속에 널리 퍼져갔다.

부화방탕한 생활로 나날을 보내고있던 백제의 포악한 개루왕도 이 소문을 듣게 되였다.

개루왕은 도미를 붙잡아가두고 도미의 안해를 시험해보기로 하였다.

개루왕은 신하를 왕으로 가장시켜 도미의 집으로 보낸다.

가짜왕은 누구도 없는 도미의 집에서 도미의 안해를 유혹하려 했지만 뜻을 이룰수 없었다.

이 말을 들은 개루왕은 성이 독같이 나서 그 분풀이로 도미의 두눈알을 뽑고 배에 태워 바다에 내버린다.

왕은 다음날 도미의 안해를 불러들여 그를 굴복시키려고 갖은 방법을 다한다.

그러나 도미의 안해는 왕을 모실 준비를 하고 오겠다고 하고는 그길로 도망쳐버린다. 그는 배를 타고가다가 외진 섬에 올랐는데 거기서 뜻밖에도 풀뿌리를 캐먹고사는 남편을 만난다.

도미와 그의 안해는 다시 배를 타고 고구려땅으로 간다.

고구려사람들은 불쌍한 도미부부를 위하여 옷과 먹을것을 모아주며 도와준다.

도미와 그의 안해는 고구려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화목하게 살았다고 한다.

소설 《도미와 그의 안해》는 재물이나 부귀영화보다도 순결한 마음을 더 귀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고구려사람들의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풍모를 보여주고있다.

또한 우리 인민은 먼 옛날부터 한강토우에서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서로 도와주며 화목하게 살아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개루왕을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부화방탕한자들인가 하는것을 날카롭게 폭로하고있다.

백제에는 이밖에도 설화 《서동이야기》, 가요 《정읍사》 등을 비롯한 작품들이 있다.

제3절. 신 라

1. 신라의 성립

B.C.1세기 초중엽 진국의 진한지역인 락동강동쪽에 자리잡고있던 사로국(12개 소국중의 하나)에서 귀족들의 모임이 진행되였다.

여기서는 나라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왕을 뽑는 문제가 토의되였다.

이때 노예들의 계속되는 폭동으로 진국은 점차 약화되고있었다.

진국의 수많은 소국들은 이제는 마한왕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기의 땅과 세력을 넓히기 위하여 끊임없는 정복전쟁을 벌렸다.

이러한 형편에서 사로국의 힘을 강화하고 령토를 더 넓혀나가자면 이것을 감당할 새로운 인물이 있어야 하였다.

귀족들의 모임에서는 박혁거세를 사로국의 새 왕으로 임명할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력사적사실을 담은 신라건국전설—박혁거세전설이 력사책들에 전해지고있다.

박혁거세는 그때 사로국에 많이 넘어와 살고있던 고조선사람들의 우두머리로 있었다.

박혁거세가 왕이 되면서 사로국은 봉건소국으로 되였다.

박혁거세는 사로국의 힘을 키우는 한편 평화적인 방법과 무력을 동원하는 방법을 배합하여 주변소국들을 하나하나 통합하여 나갔다.

락동강 동쪽지역을 다 차지한 사로국은 북쪽으로 진출하여 옛 진한지역을 자기의 땅으로 만들었다.

마한의 왕(진국왕)도 사로봉건소국을 더는 통제할수 없게 되였다.

이리하여 A.D.1세기 초중엽 사로국은 독자적인 봉건국가로

되였다.

수도는 왕경(경주)이였다.

나라이름을 신라로 부르기 시작한것은 307년부터였다.

2. 동족의 나라들에 대한 배신과 신라-당나라의 비밀협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신라통치배들은 령토를 넓히려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를 침략하려고 기회를 노리고있던 당나라의 침략세력을 끌어들이는 죄악적인 행동을 감행하였다.》

신라봉건통치배들은 령토를 넓히려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나라의 침략세력을 끌어들이는 죄악적인 행동을 감행하였다.

1) 고구려에 대한 배반

464년 가을 신라의 수도 경주에 주둔하고있던 100여명의 고구려군사들이 살해되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장수왕은 솟구치는 분노를 참을수 없어 대군을 동원하여 신라를 징벌하라고 령을 내렸다.

신라의 배신행위는 생각할수록 괘씸하기 그지없었다.

고구려는 지금까지 신라를 도와주고 적극 보호해주었다.

그것은 백제를 고립시켜 국토통합을 빨리 다그치기 위해서였다.

땅도 작고 힘도 약한 신라는 고구려의 보호속에서 백제의 집요한 공격을 물리치고 나라를 발전시킬수 있었다.

어느해인가 신라의 변경일대에 가야가 쳐들어왔을 때 고구려는 신라의 요청으로 5만명의 대군을 동원하여 도와주었다.

그후 신라의 왕은 고구려의 은혜에 보답하며 앞으로 계속 고구려에 잘 복종하겠다는 표시로 자기의 동생, 아들, 사위도 고구려에 보내여 살게 하였다.

언제인가는 신라가 왕궁을 호위할 군사를 보내달라고 하자 고구려는 무술에 능한 군사 100여명을 특별히 뽑아 보내주었다.

그런데 신라는 배은망덕하게 고구려의 군사들을 살해하였던것이다.

이제는 힘이 좀 강해졌다고 지금껏 자기를 도와준 고구려에 도발을 걸어온것이였다.

450년 신라가 고구려의 변방장수를 죽였을 때에도 고구려는 신라가 잘못했다고 빌기때문에 출동시켰던 군사를 철수한적이 있었다.

신라의 배신행위는 그후에도 계속되였다. 고구려가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공격하였을 때에도 신라는 백제를 지원하여 1만명의 군사를 파견하였다.

신라의 배반행위에 고구려는 강력한 공격으로 대답하였다.

2) 백제에 대한 배신

백제와 신라는 원래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것은 령토를 넓히느라 서로 끊임없이 싸워온데다가 신라가 고구려에 가붙었기때문이였다.

그러던 두 나라는 서로 손을 잡게 되였다.

그것은 고구려가 국토를 통합하기 위하여 남쪽으로의 진출을 더욱 강화했기때문이였다. 또한 강대한 고구려에 제각기 혼자 힘으로 맞서서는 견딜수 없었기때문이였다.

백제와 신라는 련합하여 고구려의 공격을 막아내고 빼앗긴 땅을 찾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리하여 한때 두나라는 유리한 기회를 리용하여 한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탈취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약속한대로 한강하류지역은 백제가, 그밖의 지역은 신라가 차지하였다.

그러나 2년후에 백제는 한강하류지역을 신라에 빼앗겼다. 신라가 약속을 어기고 백제를 불의에 공격하였던것이다.

격분한 백제는 3만의 군사를 동원하여 신라를 공격하였으나 오히려 크게 패하였다.

신라는 이러한 배반과 령토확장으로 우산국(울릉도), 가야지역을 차지하였다.

3) 신라의 배족행위

신라를 공격하였다가 패한 백제는 동족의 나라인 고구려에 접근하였다.

고구려는 백제를 끌어당겨 신라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였다.

신라의 북쪽에서는 고구려가, 서쪽에서는 백제가 끊임없이 신라를 위협하였다.

바빠맞은 신라통치배들은 어떻게 하나 정권을 유지하고 령토를 넓히려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나라침략자들을 끌어들였다.

신라의 배족행위는 이때 비로소 시작된것이 아니였다.

신라통치배들은 608년 수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고구려를 쳐달라고 요청하였고 612년 고구려－수전쟁이 시작되자 동족의 나라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고구려의 배후를 공격하여 남쪽지방의 적지 않은 땅까지 타고앉았다.

수나라대신 당나라가 서자 이러한 행위는 더 심해졌다.

645년 고구려－당전쟁시기에는 당나라를 지원하여 3만의 군사까지 동원시켰다.

특히 648년에는 신라의 김춘추가 당나라에 찾아가 천추에 씻지 못할 비밀협약까지 맺었다.

그 비밀협약의 내용은 신라－당나라가 련합하여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 대동강북쪽은 당나라가, 남쪽은 신라가 차지한다는것이였다.

신라봉건통치배들은 비밀협약에 따라 당나라침략세력을 끌어들여 660년에 백제를, 668년에는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천추에 용납못할 죄악을 저질렀다.

그런데 당나라는 그후 강도의 본성대로 신라마저 먹어치우려고

책동하였다.

이것은 신라봉건통치배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한 놈들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신라봉건통치배들은 령토를 넓히려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성한 우리 조국땅에 처음으로 외세를 끌어들이고 동족의 나라들을 멸망시킨 배족의 무리였다.

3. 신라의 문화

1) 첨성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선조들은 7세기 전반기에 벌써 세계에서 이름있는 천문대인 첨성대를 건설하여 기상학과 천문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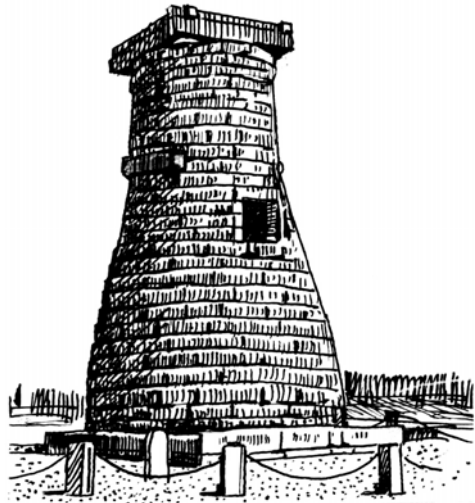
신라인민들은 기상학과 천문학을 비롯하여 과학과 기술, 문화를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신라의 수도였던 경상북도 경주에는 7세기 전반기에 건설한 첨성대가 있다.

첨성대란 별을 바라보는 집이라는 말인데 일정한 설비를 갖추어놓고 태양, 달, 별 등을 관측하고 연구하는 천문대이다.

잘 가공한 돌로 27줄이나 쌓아올린 첨성대는 높이가 약 9.1m, 아래직경이 약 4.9m, 웃부분직경이 2.9m이다.

첨 성 대

원형으로 쌓아올린 첨성대는 우로 올라가면서 안으

로 점차 좁아지다가 3m정도에서부터는 급격히 좁아져 안정되고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있다.

마치 아구리가 넓은 꽃병을 세워놓은것 같다.

맨우에는 한 면이 2.85m 되는 4각 돌귀틀을 두겹으로 올려놓았다.

이 틀우에 여러가지 기구를 올려놓고 천문현상을 관측하였다.

첨성대의 중간에는 네모난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위한것이였다.

첨성대는 매우 든든하게 쌓았기때문에 근 1 400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대로 서있다.

첨성대는 지금까지 세계에 남아있는 천문대들가운데서 력사가 제일 오랜것이다.

첨성대는 우리 선조들이 일찍부터 천문현상과 기상현상을 세밀히 관측하고 깊이 연구하여왔다는것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유적이다.

2) 황룡사 9층탑

황룡사는 후기신라의 유명한 화가인 솔거와 인연이 깊은 절간이다.

솔거가 우둘투둘한 소나무를 얼마나 생동하게 그려놓았던지 새들이 거기에 앉으려고 날아들다가 떨어졌다는 벽이 바로 황룡사절간의 벽이였다.

황룡사는 경주에 있던 절간이였는데 누런 룡이 나타난 절간이라고 하여 황룡사라고 불렀다.

황룡사는 여러채의 건물로 이루어진 큰 절간이였는데 탑이 유명하였다.

4각 9층으로 된 나무탑의 높이는 78.75m나 되였다.

그때까지 이렇게 크고 높은 탑은 그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

탑의 맨 아래층은 하나의 커다란 집처럼 되였는데 한 면의 길이는 22m나 되였다.

탑에는 계단이 있어 맨 꼭대기까지 오를수 있었는데 거기서는

온 경주시내를 다 바라볼수 있었다.

이 탑은 645년에 신라가 백제의 탑건축기술자 200여명의 방조를 받으며 건설한것이였다.

황룡사 9층탑은 불교를 널리 퍼뜨리기 위하여 건설한것이지만 거기에는 신라, 백제인민들의 높은 건축기술이 깃들어있다.

1238년 봉건몽골침략자들이 고려에 쳐들어와 황룡사건물과 탑에 불을 지르고 무참히 파괴함으로써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3) 금관

경상북도 경주의 한 무덤에서 금관이 나왔다.

이 무덤을 금관무덤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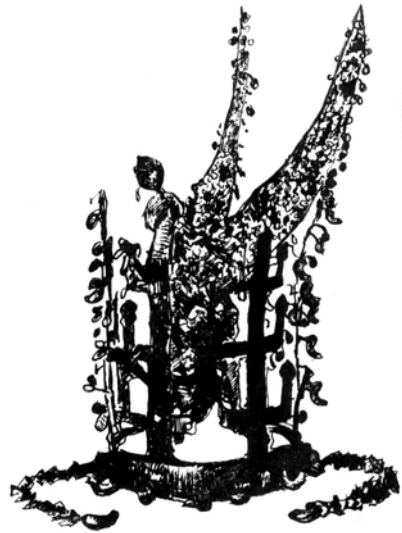
여기서는 순금으로 만든 금제품이 7.5kg이나 나왔는데 구슬만도 3만여개나 되였다.

그중에서 대표적인것은 금관이다.

금관의 높이는 44.4cm, 직경은 18.5cm이다.

둥근 테두리에 5개의 기둥을 세우고 뒤로는 2개의 긴 새깃장식을 하였다. 좌우로 달린 여러개의 꽃을 형상한 가지에는 330개의 둥그런 금판쪼박(보요)과 57개의 굽은 구슬을 금실로 매달아놓았다.

금 관

조금만 움직여도 눈부시게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금관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세공품의 하나이다. 금관은 비록 신라의 왕들이 쓰던것이지만 거기에는 인민들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다.

4) 천보노

우리 나라 력사에 전해지고있는 많은 무기들가운데는 천보노라고 하는 무기도 있다.

천보노는 7세기 중엽 신라의 재능있는 무기기술자 구진천이 만든것이다. 천보노란 화살을 1 000보정도 날려보낼수 있는 기계활을 말한다.

무기가 하도 신통하여 그 소문은 널리 퍼져 어느덧 바다건너 당나라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였다.

소문을 들은 당나라왕은 신라에 사신을 보내여 구진천을 초청해다가 그것을 만들어보려고 하였다.

그는 구진천에게 자기 나라에 있으면서 자기 신하로 되면 높은 벼슬과 금은보화를 주어 한평생 호화롭게 살아가도록 해주겠다고 구슬렸다.

구진천은 그대로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릴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나라를 배반하는 길이라는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었다.

때문에 그는 이미 결심한바가 있었으므로 노를 만들어줄것처럼 일감을 쥐고 열심히 일하는척 하였다.

오랜 시일이 걸려 드디여 노가 만들어져 첫 시험을 하였는데 화살은 겨우 30보정도 가서 땅에 떨어졌다.

당나라왕은 너희 나라에서는 화살이 1 000보를 가는데 어찌하여 이것은 30보밖에 가지 않는가고 꾸짖었다.

구진천은 노를 만드는 나무가 신라의것과 다르기때문이라고 구실을 대였다. 당나라왕은 신라의 나무를 가져다가 노를 다시 만들게 하였다. 그러나 역시 화살은 멀리 가지 못하였다. 또다시 당나라왕이 그 리유를 묻자 그것은 신라의 나무가 바다를 건너오면서 습기를 받고 잘 마르지 않은데 있다고 변명하였다.

구진천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당나라왕은 그에게 모진 고문을 들이대면서 기어이 비밀을 뽑아내려고 날뛰였다. 그러나 구진천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맞서싸우다가 끝끝내 조국에 돌아올수 있었다.

구진천의 투쟁은 외래침략자들의 갖은 회유와 고문을 꿋꿋이

이겨내고 자기가 창조한 모든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는 우리 인민의 남다른 애국심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5) 소설 《설씨의 딸》

이 작품은 신라인민들이 창작한 대표적인 문학작품의 하나이다.

신라의 어느 한 마을에 설씨성을 가진 로인과 그의 딸이 가난하게 살고있었다.

어느날 늙고 병든 설씨로인은 변방수비에 나가게 되였다는 말을 듣고 걱정한다.

이때 이웃에 사는 가실이라는 총각이 설씨로인을 대신하여 자기가 변방수비에 나갈것을 결심한다.

설씨로인은 이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는것으로써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

그리하여 설씨의 딸은 가실이 돌아온 다음에 혼례를 하기로 약속한다.

가실은 머나먼 변방수비에 떠난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기한이 퍽 지났어도 가실이는 돌아올줄 몰랐다.

설씨로인이 처녀로 나이들어가는 딸을 걱정하여 그를 다른데 시집보내려 하였으나 딸은 신의를 저버릴수 있는가고 하면서 가실이만을 기다린다.

소설은 6년후에 돌아온 가실이와 한번 맺은 약속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 설씨의 딸이 마을사람들의 축복속에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것으로 끝난다.

소설은 무엇보다도 예로부터 자기를 낳아 키워준 부모에 대한 지극한 정성과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온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풍모를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또한 늙고 병든 로인에게 군사복무를 강요하며 3년을 기한으

로 나간 가실이를 오래동안 돌려보내지 않고 모습조차 알아볼수 없게 만든 신라봉건통치배들이 얼마나 악착하였는가를 폭로비판하고 있다.

신라에는 이밖에도 조선사람의 굳센 절개를 보여주는 소설 《박제상전》, 신라와 왜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애국적감정을 반영한 설화 《연오랑과 세오녀》 등 설화들과 시작품들이 있었다.

6) 백결선생

백결선생은 신라의 재능있는 음악가였다.

그런데 살림이 너무 가난해서 옷을 100군데나 기워입었다고 하여 백결선생이라고 불렀다.

백결선생은 모진 가난속에 살면서도 조금도 비관하지 않고 노래를 짓고 거문고를 타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사람들속에 널리 불리워진 방아타령은 백결선생의 가난한 생활과 뛰여난 음악적재능을 다같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어느해 설명절을 앞두고 이웃집들에서는 방아찧는 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쓸쓸한 방안에서 이 소리를 듣다 못해 안해가 남편에게 불만과 근심이 섞인 목소리로 말하였다.

《남들은 명절을 맞으며 쌀을 찧고있는데 우리만 낟알 한알 없이 빈방에 앉아있으니 무엇으로 설명절을 쇠겠나이까?》

백결선생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보, 남의 집 방아찧는 소리가 그렇게도 부럽소? 그렇다면 우리도 방아를 찧읍시다.》

백결선생은 거문고를 당겨놓고 연주하기 시작하였다.

《쿵덕쿵, 쿵덕쿵》 신통히도 방아찧는 소리였다. 백결선생의 방아소리는 이웃집들에까지 울려갔다.

그 소리가 얼마나 흥겹고 장단이 꼭 맞았는지 온 동네가 그의

거문고소리에 맞추어 방아를 찧으며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방아타령》이였다.

백결선생은 거문고를 연주하고 훌륭한 곡을 지어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 음악가였다.

신라에는 이밖에 본래 가야사람으로서 가야금을 완성하고 음악후비들을 많이 키운 작곡가이며 연주가이며 교육가인 우륵도 있었다.

가 야

가야는 고구려, 후부여, 백제, 신라와 함께 우리 나라의 첫 봉건국가들중의 하나이다.

가야는 1세기 중엽에 락동강하류지방에 세워졌다.

가야의 중심지는 오늘의 김해지방이였다. 가야가 세워진 곳은 본래 고대국가 진국의 변한땅이였다.

B.C.2～1세기경에 변한지역의 여러 소국들에서는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봉건적요소들이 싹트고있었다.

그후 북방에서 내려온 김수로를 비롯한 사람들의 집단이 구야국에서 점차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B.C.1세기 초중엽에 김수로는 봉건국가인 금관가야국을 세웠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변한지역에는 고녕가야, 대가야, 소가야, 성산가야, 아라가야 등의 가야국들이 세워졌다.

이를 가야(또는 6가야)라고 한다.

가야국들은 변한의 통제에서 벗어나 A.D.1세기 중엽에는 봉건소국들의 련합체로서 독자적인 봉건국가로 되였다.

가야에서 주도적자리를 차지한것은 금관가야였다.

가야에서는 쇠보습과 쇠낫을 비롯한 여러가지 철제농기구가 보급되여 일찍부터 벼농사가 발전하였고 소로 발갈이를 하였다.

수공업도 발전하여 철가공생산을 많이 하였으며 멀리 외국에까지 수출하였다.

금, 은, 청동가공기술이 높았으며 배무이기술이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가야사람들은 일찍부터 배를 타고 일본땅에 건너가 소국을 형성하고 살면서 그곳의 원주민들에게 경제, 문화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력사적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삼국시기에 일본 야마또왕정이 남부조선일대를 몇세기동안 지배했다고 하는 침략적인 《미마나 미야께설》을 날조하였다.

이것은 력사적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허황한 궤변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당시 일본땅에 남부조선지방까지 진출하여 그곳을 통치할만 한 힘을 가진 통일국가가 없었다는 사실이 말해준다.

그때 일본 야마또지방에 국한되여있던 야마또왕정이라는것이 다른 지방의 여러 소국들도 통제하지 못한 처지에서 바다건너 조선의 남부에까지 온다는것은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그것은 광개토왕릉비에 기록된 고구려가 남쪽으로 진출하면서 백제, 가야와 함께 그의 조종밑에 움직이는 북규슈지방의 백제, 가야계통 왜를 격파했던 사실을 일본반동들이 마치도 왜(일본)가 바다를 건너 백제, 신라를 격파한듯이 거꾸로 해석하는데 있다.

그것은 또한 조선의 남부지방에 일본사람들이 와있었다고 볼만한 유적유물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일본땅에 조선사람들이 남긴 집자리, 무덤, 조선식산성, 로동도구와 무기, 장식류, 그릇류 등 유적유물이 많은데 있다.

그런데도 일본반동들은 허황한 《미마나 미야께설》을 줴치면서 조선침략을 합리화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가야는 562년에 신라에 통합되여 자기 존재를 마치였다.

제4절. 일본땅에 퍼진 세나라의 문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장공인들, 건축가들, 화가들, 선비들은 일본에 건너가서 글과 기술을 보급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세나라 사람들은 일찍부터 일본땅에 건너가 일본의 문화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1. 다까마쯔무덤과 벽화

주체61(1972)년 일본 나라현지방에서 다까마쯔무덤이 발견되였다.

다까마쯔무덤은 그때까지 일본에서 발견된 무덤들과는 전혀 다른 특이한 무덤이다.

무덤은 잘 가공한 돌로 하나의 칸을 만들고 그우에 흙을 덮었다.

무덤칸의 벽과 천정에는 색동주름치마를 입고 긴 자루가 있는 부채를 든 여러명의 녀자들, 사신, 해, 달 등이 그려져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의 력사학자들은 이 무덤이 고구려식돌칸흙무덤이며 벽에 있는 그림도 우리 나라에 있는 고구려벽화무덤의 그림과 같다는것을 밝혀냈다. 또 이 무덤의 벽화는 그때까지 일본에서 발견된 무덤벽화가운데서 제일 잘 그린 그림으로 평가되였다.

다까마쯔무덤은 일본에 건너간 고구려기술자들의 지도밑에 쌓은 무덤이였다.

이러한 고구려식벽화무덤은 그후 일본의 여러 지방에서 발견되였다.

2. 법 륭 사

일본의 나라현에 법륭사라는 절간이 있다.

법륭사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목조건물가운데서 제일 오래된것으로서 607년에 지었다.

법륭사는 건설로부터 그안에 있는 불상, 그림, 탑 등 모두가 고구려, 백제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창작된것으로서 세나라 사람들의 높은 문화수준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는 대표적인 절간이다.

법륭사의 금당(부처를 놓아두는 기본건물)벽에는 불교내용을 담은 그림이 있는데 무려 12폭이나 되는 큰 그림이다. 이 그림은 고구려의 화가 담징이 그린것이다.

련꽃방석우에 앉아있는 부처를 비롯하여 수많은 인물, 련꽃을 비롯한 섬세한 꽃무늬들을 매우 화려하게 형상하였다.

이 금당벽화는 세계적으로 중세회화작품의 걸작으로 높이 평가되였다.

담징은 일본에 건너가서 그림만 그려준것이 아니라 종이, 물감, 먹만드는 방법, 물방아만드는 기술을 배워준 재능있는 화가이며 기술자였다.

법륭사에는 백제기술자들이 만든 옥충주자라고 하는 나무조각도 있다.

옥충주자의 높이는 약 2.33m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되여있다.

받침대우에는 두층으로 된 조각이 있는데 바로 이 조각이 유명하다.

아래층은 탑몸처럼 생긴 조각이고 그우의 조각은 부처를 넣어두는 함인데 주자라고 한다.

옥충주자라고 하는것은 궁전부분의 금속장식판밑에 딱정벌레(옥충)의 금록색날개를 거의 1 200여마리분이나 깔았기때문이다.

궁전모양의 주자에는 문이 달려있고 그안에 불상을 놓게 되여있다.

옥충주자의 겉면에는 여러가지 그림과 무늬를 새겼다.

옥충주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공예품으로서 당시의 나무와 금속공예, 건축기술, 그림의 높은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법륭사에는 이밖에도 백제의 조각가들이 만든 나무부처조각 백제관음상과 5층탑이 있다.

법륭사는 이처럼 당시 우리 나라의 발전된 문화가 일본의 문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것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있는 조선식절간이다.

3. 세계적인 걸작품 성덕태자상

백제의 화가 아좌는 597년에 일본에서 성덕태자상을 그렸다.

성덕태자는 그때 일본에서 실권을 틀어쥐고있었다.

아좌는 성덕태자의 요청으로 그의 초상을 그려 뛰여난 회화솜씨를 보여주었다.

그림은 허리에 장식을 한 칼을 차고 위엄있게 서있는 태자와 량옆에 작은 칼을 차고 두손을 가슴에 모아쥔 두명의 어린 아이를 생동하게 묘사하였다.

성덕태자상은 중세그림들중에서 세계적인 걸작품으로 높이 평가되고있다.

이밖에도 일본에는 그림분야의 시조라고 하는 인사라아라는 화가가 있었다. 그는 463년에 일본에 건너가 그림그리는 법을 가르쳐준 백제사람이였다.

세나라의 발전된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일본은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측면에서 빨리 발전할수 있었다.

제4장. 발해와 후기신라

제1절. 발 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서 7세기말부터 10세기초에 이르는 시기에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우리 나라 력사에는 해동성국으로 그 이름을 떨친 발해봉건국가가 있었다. 해동성국이란 말은 발해가 동방의 강성한 국가라는 뜻에서 불리워진것이다.

1. 천문령싸움과 발해의 성립

696년 영주지방에는 지난날의 고구려사람들이 많이 모여살고 있었다.

영주는 중국 만리장성의 동쪽 대릉하류역의 서쪽(오늘의 랴오닝성 챠오양)지역에 있다.

고구려에 침입한 당나라침략자들은 고구려인민들의 항전력량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료하서쪽지방으로 이주시켰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이 강하였던 고구려사람들은 늘 고국을 잊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당나라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새 국가를 세울 결심을 가지고있었다.

이때 영주지방에서는 당나라의 통치를 반대하는 다른 종족들의 폭동들도 계속 일어났다.

고구려인민들은 696년에 지난날 고구려장수였던 대조영의 지휘밑에 폭동을 일으켰다.

폭동군은 영주성을 들이치고 그곳 우두머리를 처단한 다음 그 일대의 당나라군대를 격파하면서 동쪽으로 진격하였다. 그것은 고구려사람들이 당나라세력을 몰아내고 옛 고구려땅에 다시금 강대한 나라를 일떠세우기 위해서였다. 때문에 많은 고구려인민들이 폭동군부대에 합류함으로써 그 수는 급속히 늘어났다.

폭동군부대는 영주동남쪽의 여러 성들을 점령하고 강점자들을 소멸하였다.

이에 질겁한 당나라통치배들은 수많은 군대를 내몰아 고구려인민들의 폭동부대를 진압해보려고 하였다.

폭동군은 뒤쫓아오는 당나라군을 천문령까지 유인하였다.

그리하여 698년 천문령에서 판가리싸움이 벌어졌다.

천문령은 랴오닝성 산간지대에 있는 한개 령이였다. 폭동군은 험한 산세를 리용하여 유리한 곳에 매복하였다가 일대 섬멸전을 벌려 당나라군을 거의다 몰살시켰다.

이때 폭동군의 공격이 얼마나 드세였던지 적의 우두머리 리해

고는 패잔병들을 수습하지도 못한채 황급히 뺑소니치고말았다.

천문령전투는 고구려사람들의 힘이 다시금 크게 자라났음을 보여준 력사적인 전투로서 발해의 창건과 직접 련관되였다.

천문령전투소식은 고구려 옛 지역 인민들의 투쟁을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하였다.

대조영은 각지에서 벌어지던 고구려유민들의 투쟁을 하나로 련합하여 당나라세력을 완전히 몰아내였다.

그리고 698년에 발해라는 나라를 세웠다.

발해의 수도는 처음에 동모산(중국 둔화 동쪽)에 정하였으며 첫 왕은 대조영이였다.

발해가 서게 됨으로써 고구려사람들은 다시 옛 땅에서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생활을 창조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서 고구려사람들의 상무적기풍과 발전된 문화를 이어받아 강력한 봉건국가로 발전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2. 5경 15부

5경 15부란 발해의 지방행정구역을 15개 부로 나누고 중요한 부에 5개의 경을 설치한것을 말한다.

발해봉건국가는 성립후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 광활한 령토를 차지하게 되였다. 때문에 봉건국가는 인민들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직접 실현하는 지방통치체계를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5경은 상경(동경성), 중경(화룡), 동경(부거), 서경(지안), 남경(함경남도 북청)을 통털어 이르는 말이였다. 그중 상경은 발해의 수도였다.

성립후 발해는 령토가 크게 넓어지고 나라의 힘이 강해짐에 따라 755년에 수도를 동모산으로부터 상경룡천부로 옮겼다. 상경룡천부가 자리잡은 곳은 기름진 들이 가없이 펼쳐져 온갖 곡식과 과

일이 풍성하고 교통이 편리하였다. 남쪽에는 징풔호가 자리잡고 동쪽과 북쪽으로는 쑹화강이 감돌아흐르고있어 외적을 막는데도 유리한 지대였다.

상경룡천부는 둘레가 40리나 되는 성안에 웅장한 궁전과 관청건물들이 들어앉고 수많은 살림집들이 늘어선 번화한 봉건도시로 꾸려졌다.

발해봉건국가는 상경룡천부와 같은 중요도시들을 4개나 더 꾸리였다. 이것만 보아도 발해가 얼마나 넓은 령토를 차지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부밑에는 62개의 주와 수백개의 현을 두었다. 그리고 후국과 속령지역도 있었다.

지방의 모든 관청들에서는 국왕이 임명한 관리들이 틀고앉아 인민들로부터 조세와 공물을 받아내고 부역로동을 강요하였다.

5경 15부는 해동성국으로 그 이름을 떨쳤던 발해봉건국가의 륭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발해봉건국가는 10세기초에 들어서면서 봉건통치배들의 권력싸움으로 하여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때 발해침공의 기회만을 노리고있던 거란침략자들이 기여들었다.

나라의 존망을 판가리하는 시각에 애국적인 군대와 인민들은 한결같이 떨쳐나서 용감히 싸웠다.

그러나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제 한목숨이 아까와 적들에게 투항하고말았다. 그리하여 발해는 926년에 멸망하였다.

3. 발해의 문화

1) 상경의 건축과 돌등

단군조선에 뿌리를 두고있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은

발해인민들의 건축물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상경의 건축이란 발해의 수도인 상경에 세워졌던 건축물들을 말한다.

상경은 왕이 있는 궁성과 관청이 자리잡은 황성, 주민들이 사는 외성으로 나누어져있었다. 이것은 수도건설에서 고구려 평양성의 설계방식을 이어받은것으로서 발해인민들의 슬기로운 재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추녀가 높이 들린 왕궁과 관청들의 지붕에는 사기물을 올린 기와를 이었고 지붕을 받들고 선 아름드리 기둥과 기둥머리를 장식한 두공에는 화려한 색갈로 무늬장식을 하였다. 그리고 큰 건물들은 모두 긴 복도로 서로 이어져있었다.

상경의 시내에는 넓고 곧은 길을 가로세로 내였는데 큰 도로는 그 폭이 110m나 되였다.

상경의 옛 절터에는 발해사람들이 만든 돌등이 남아있어 당시 조각예술의 발전모습을 잘 보여주고있다. 돌등은 밤에 절간을 밝히기 위하여 돌로 불집을 만들고 그안에 초불을 켜놓을수 있게 만든것이다.

상경돌등

상경 돌등은 8각평면의 정자건물형식으로 되여있다.

돌등의 높이는 6.3m이며 련꽃무늬를 새긴 받침대, 배부른 기둥, 8각의 정자모양을 본딴 불집, 머리치레 등 4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돌등은 굳은 돌인 용암을 쪼아 만든것이지만 마치도 나무를 깎아 만든것처럼 섬세하게 조각되였다.

특히 련꽃무늬와 기와, 머리치레 등은 기묘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자아내고있다.

그러면서도 돌등은 안전받침대와 굵직한 기둥들이 서로 잘 어울려 안전하고 무게있어보인다.

2) 시문학

발해사람들은 동방에서 손꼽히는 나라에서 사는 긍지를 느끼면서 언제나 자기 나라를 무한히 사랑하였다.

때문에 어디가서도 자기 조국을 잊지 않았다. 그러한 감정은 시창작에서 많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작품으로서는 양태사가 지은 시 《밤에 다듬이소리를 듣고》가 있다.

이 작품은 8세기 중엽 시인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다듬이소리를 듣고 조국이 그리워 창작한것이다.

서리찬 가을 달밤에
은하수 유난히 빛나고
나그네 고향생각
시름 더욱 깊어가네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볼가 하되
하그리 긴 수심에
잠인들 차마 오리

자연과의 조화속에서 서정적주인공의 간절한 고향생각은 이웃에서 들려오는 다듬이소리로 하여 더욱더 깊어간다. 시인은 다듬이질하는 녀인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고향의 안해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하였다.

이처럼 시에서는 애국적감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기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민족적정서가 흘러넘치게 노래하였다.

이밖에도 왕효렴이 지은 시 《달을 보고 고향을 생각하여》도 역시 우수한 시로 알려져있다.

이 시에서는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밝은 달을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는 시인의 심정을 통하여 발해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씨와 그 어디에 가서도 고국을 잊지 못해하는 애국적감정을 잘 나타내였다.

배정이 지은 시 《산꽃을 노래하여》도 우수한 작품의 하나로 전해지고있다.

주제사상적내용이 깊고 시적기교가 우수한 이 작품들은 당시 발해의 시가문학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2절. 후기신라

1. 9주 5소경

신라는 7세기 중엽까지를 전기신라, 그후 935년까지를 후기신라라고 하는데 9주 5소경이란 후기신라에서 지방행정구역을 9개의 주와 5개의 소경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다.

7세기 중엽이후 신라의 령역은 옛 백제지역을 포함하여 중부조선이남지역까지 넓어지게 되였다.

넓어진 령토에 대한 지방행정체계를 빨리 세우는것은 많은 인민들을 지배장악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신라봉건통치배들은 전국에 모두 9개 주를 설치하였다. 주라고 하면 오늘의 도와 같은 행정단위였다. 주아래에는 그에 속하여 통제를 받는 군과 군아래에 다시 현을 두었다.

이와 함께 신라봉건통치배들은 지방의 중요한 곳에 소경들을 설치하였다. 소경이란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설치되는 작은 수도라는 뜻이다.

소경은 모두 5개였으므로 5소경제도라고 하였다. 소경은 강원

도 원주(북원소경), 경상남도 김해(금관소경), 충청북도 청주(서원소경), 전라북도 남원(남원소경), 충청북도 충주(국원소경)에 각각 두었다.

지방의 관리들은 왕이 직접 임명하였는데 주의 우두머리는 군주 또는 도독이라고 하였으며 소경의 우두머리는 사신이라고 하였다.

신라의 9주 5소경제도는 인민들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반동적인 통치체계였다.

2. 청해진과 장보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바다를 개척하고 바다우에서 용감히 싸운 사실들이 많습니다.》

옛날부터 바다를 개척하고 바다우에서 용감히 싸워온 우리 인민은 후기신라시기에 이르러서도 바다에로의 진출을 보다 활발히 벌렸다.

장보고는 9세기 초엽 당나라에 가있는 동안 당나라해적들이 신라의 해안지대에서 감행하는 만행들을 보고 격분해하였다.

장보고는 신라로 돌아와 전라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할것을 봉건정부에 제기하였다.

국왕은 828년 장보고에게 군사 1만명을 주어 청해진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를 청해진대사로 임명하였다.

완도에 도착한 장보고는 청해진을 철통같이 꾸린 다음 다른 나라 해적들을 호되게 징벌하였다.

그리하여 다른 나라 해적들은 우리 나라 서남해상에 얼씬도 하지 못하였으며 신라의 배들은 마음놓고 항행할수 있게 되였다.

장보고는 청해진대사로서 수많은 군대를 지휘하였을뿐아니라 많은 상선을 가지고 당나라 및 일본과 무역을 크게 벌려 많은 리득을 보았다.

그리하여 청해진은 조선서해와 조선남해를 틀어진 강력한 해군기지로만이 아니라 동방무역의 중심지로 되였다.

청해진이 이처럼 튼튼하게 꾸려지고 번창해질수 있었던것은 일찌기 고구려의 발전된 기술을 받아들인 신라의 높은 배무이기술과도 관련되지만 그보다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굳건히 지키려는 우리 인민의 애국심이 남달리 높았기때문이다.

그후 봉건통치배들은 청해진의 세력이 너무 커지는데 겁을 먹고 이것을 해산시켜버렸다.

청해진은 약 25년밖에 존재하지 못하였으나 우리 나라의 위력을 해외에 떨치고 다른 나라 해적들이 얼씬 못하게 하며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3. 후기신라의 문화

1) 불국사

불국사는 6세기 전반기에 봉건통치배들이 불교를 선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경주시 토함산 중턱에 세운 절간이다. 그후 8세기 중엽에 전면적으로 크게 고쳐지었다.

불국사는 후기신라인민들의 뛰여난 건축술을 보여주고있다.

절간은 대웅전과 극락전을 중심으로 두 구역으로 나뉘여 배치되여있다. 그러면서도 중심구역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서쪽구역을 한단 낮추어 조화롭게 지었다.

절간의 동쪽에는 백운교와 청운교라는 다리를 놓아 자하문을 통하여 절간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서쪽에도 칠보교와 련화교를 놓아 안양문을 통하여 들어가게 하였다.

이처럼 우수한 건축적째임과 다양한 수법의 리용,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들의 조화는 당시 우리 선조들의 높은 건축기술을 잘 보여준다.

불국사 대웅전 앞마당에는 유명한 다보탑과 석가탑이 동서로 나란히 놓여있다.

동쪽에 있는 다보탑은 굳은 화강석을 부드럽고 섬세하게 다듬어 쌓아올렸다. 6개 부분으로 이루어진 이 탑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있다.

서쪽의 석가탑도 역시 화강암을 잘 다듬어 별로 멋을 부리지 않고 검소하게 쌓아올린 탑이다. 그러면서도 균형이 잘 잡히여 힘있고 굳센 느낌을 준다.

때문에 두 탑은 서로 대조적인 쌍을 이루면서 절간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준다.

이밖에도 후기신라의 건축물로서는 경주 토함산 중턱을 깎아내고 그곳에 돌을 쌓아 굴을 만든 다음 흙을 덮은 지하절간인 석굴암도 있다.

석굴암은 네모난 앞칸과 둥근 안칸, 그것을 련결시킨 짧은 복도로 이루어져있는데 그 뛰여난 솜씨는 모두 당시의 우수한 건축술을 보여준다.

2) 봉덕사종

지금으로부터 1 200여년전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 봉덕사라는 절간에서는 중들이 왕의 복을 빈다는 구실밑에 인민들의 재물을 빼앗아내여 종을 만드는 일을 하였다.

그런데 종에서는 이상하게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종을 만드는 일에서 두번이나 실패하였다.

중들은 그 원인이 백성들이 부처에게 재물바치기를 싫어하여 부처의 노여움을 산데 있다고 하면서 인민들의 재산을 마구 략탈하였다.

악착한 중놈들은 어느 한 가난한 집 녀인에게서 어린 아이를 빼앗아내여 펄펄 끓는 쇠물가마에 집어넣고 종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종을 칠 때마다 《에밀레, 에밀레》 하는 구슬픈 소리가 났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종소리가 중놈들에게 죽음을 당한 어린 아이의 흐느낌소리같다고 하여 에밀레종이라고 불렀다.(이것은 물론 전설이다.)

바로 이 종이 봉덕사종이였다.

771년에 만든 이 종은 아구리직경이 2.47m, 둘레가 7.12m, 두께는 26cm, 높이가 3.33m나 되는 큰 종인데 그 무게는 무려 12만근이나 되였다.

이 종은 청동으로 만들었다.

당시 이처럼 큰 종을 단번에 한개의 덩어리로 부어낼수 있었던 것은 발전된 야금기술이 있었기때문이였다.

종을 치면 맑고도 무게있는 소리가 사방 100리까지 울려퍼졌다고 한다.

종의 형태가 우람차면서도 부드러운감을 주며 겉면에 새긴 여러가지 화려한 장식은 당시 사람들의 뛰여난 금속공예술도 보여준다.

종의 어깨와 아구리부분에는 띠를 두르고 탐스러운 련꽃무늬를 새겼으며 종의 웃부분에는 꽃판을 만들고 화려한 꽃무늬와 꽃으로 장식을 하였다.

그리고 종 허리에는 4명의 선녀를 새겼는데 그 모습은 가벼운 옷자락을 바람에 날리며 오르내리는것 같기도 하여 황홀한 느낌을 준다.

이 종은 지금까지 전해지는 우리 나라 종들가운데서 가장 크고 오랜 종으로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있다.

이외에 봉덕사종보다 더 크고 이름있던 종으로서는 754년에 만든 황룡사종이였다. 이 종은 무게가 49만 7천 581근이나 되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3) 《왕오천축국전》

《왕오천축국전》은 8세기 전반기 중이였던 혜초라는 사람이 쓴 우리 나라 최초의 대장편려행기작품이다.

천축국이란 인디아를 말한다. 《왕오천축국전》이란 천축국이 동, 서, 남, 북, 중앙 등 5개의 나라로 나뉘여져있었는데 여기에 갔다온 이야기라는 뜻이다.

이 책은 원래 3권이였는데 당나라사람이 그것을 한권으로 간략해 만들었다. 그것이 1910년 중국 간쑤(감숙)성 둔황(돈황)현에 있는 한 석굴

사당에서 발굴되여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중이였던 혜초는 불교연구를 목적으로 불교가 발생한 곳인 인디아에 가볼것을 결심하고 당나라를 거쳐 인디아로 갔다.

그는 인디아의 여러 나라들을 답사한 다음 서쪽으로 발길을 돌려 지금의 수리아지방에까지 갔다가 되돌아섰다.

그리고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빠미르고원을 넘어 727년에 중국의 구자국(신쟝성)을 거쳐 장안(시안)에 도착하였다.

그 당시 찌는듯 한 더위를 무릅쓰고 근 10만리의 멀고먼 길을 걸어 인디아와 페르샤(이란)의 여러 지방을 돌아보고 넓은 중국땅 곳곳을 다녔다는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혜초는 이 려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려행과정에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것을 정리하여 장편려행기로서 《왕오천축국전》을 썼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보게 되는 다른 나라의 자연과 인민들의 생활처지, 풍속과 특산물, 통치제도 등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모로 소개하였다.

그는 인민들의 가난한 생활처지를 보고는 동정을 표시하였고 뒤떨어진 풍습이나 악한 법이 있는것을 보고는 그것을 비판하였으며 너그러운정사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혜초는 기나긴 려행을 하는 동안 언제나 자기 고향과 조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모대기였으며 그 심정을 담은 시도 지었다.

《왕오천축국전》에는 작가가 중이였으므로 불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기는 하나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대려행기로서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려행기작품의 하나로 된다.

꼴롬부스나 아메리고 베스푸치, 마젤란과 같이 세계력사에는 이름난 려행가, 탐험가들이 많이 전해지고있지만 그보다 700여년이나 앞서 우리 나라 사람이 세계를 려행하고 그것을 기록했다는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으로 된다.

4) 솔거의 그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가 솔거가 황룡사벽에 소나무를 어찌나 생동하게 그려놓았던지 날아가던 새들이 그것이 진짜 소나무인줄로 알고 앉으려다가 벽에 부딪쳐 떨어지군 하였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8세기 신라의 화가 솔거는 우리 나라의 이름난 화가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가난한 집에서 태여난 그는 어려서부터 그림에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있었다. 그는 살림이 하도 어려워 선생에게서 그림을 배울수 없었으며 종이와 붓, 색감 같은것을 제대로 구해쓸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나무하러 산에 가서는 칡뿌리를 캐여 그것으로 바위우에 그림을 그렸고 밭에 나가면 호미를 붓삼아들고 종이대신 모래우에 그림을 그리군 하였다.

솔거는 신라의 수도 왕경(경주)의 이름난 절간인 황룡사의 높고 넓은 벽에 커다란 늙은 소나무를 그렸다.

어찌나 생동하게 그렸던지 날아가던 까치, 수리개, 제비, 참새들이 진짜 소나무인줄로 알고 거기에 앉으려다가 부딪쳐 떨어졌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솔거가 그린 늙은 소나무벽화는 차츰 색이 낡아졌다. 절간에 찾아오는 사람마다 이것을 매우 아쉬워하였지만 감히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였다.

이런 때 그림을 좀 그릴줄 안다는 이 절간의 중이 본바탕에 다시 채색을 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다시는 까치나 참새가 그림곁에 얼씬하지 않았다고 한다.

솔거는 이밖에도 단군의 초상을 비롯하여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한결같이 훌륭하여 그때 사람들은 도저히 사람의 재간이라고는 믿기 어렵다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제3절. 9세기농민전쟁과 후삼국

9세기는 날로 강화되는 봉건통치배들의 착취와 억압으로 하여 살길이 막힌 인민들이 나라의 곳곳에서 들고일어나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던 시기이다.

인민들의 이러한 투쟁을 9세기농민전쟁이라고 한다.

1. 붉은바지농민폭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서는 인민들의 반항이 있는 법입니다.》

봉건통치배들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으로 인하여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빠진 농민들은 9세기초부터 투쟁에 일떠서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9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여러 지방을 휩쓴 농민전쟁으로 발전하였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투쟁은 붉은바지농민폭동이였다.

붉은바지농민폭동이란 그들이 자기편과 적을 쉽게 가려보며 또 폭동군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기 위하여 모두가 붉은 바지를 입은데서부터 불리워진 말이였다.

농민폭동은 896년 신라의 서남부지방에서 일어났다.

이 농민군부대는 이 시기 농민들의 투쟁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용감히 싸운 부대였다.

그들은 창과 칼, 활로 무장하고 여러 군, 현들의 관청과 지주놈들의 집을 습격하여 놈들을 처단하였다. 그리고 창고를 열어서는 굶주린 인민들에게 식량을 나누어주었다.

붉은바지농민군은 투쟁을 세차게 벌려나가는 과정에 그 힘이 점점 더 강해져 신라왕조까지 뒤집어엎을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그들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수많은 고을들을 들이치면서 수백리의 먼 싸움길을 거쳐 신라의 수도 왕경 서쪽에까지 진출하였다. 이곳에서도 농민군은 관청들과 불교절간들을 습격파괴함으로써 봉건

통치배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이때 신라귀족들은 얼마나 무서웠던지 감히 바깥출입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에 질겁한 왕과 봉건통치배들은 농민군을 진압하려고 급히 많은 군대를 내몰았다.

왕경가까이에서 농민군과 정부군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다. 농민군은 수적으로 우세한 적들을 상대로 결사전을 벌려 정부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이밖에도 사벌주(상주)에서 원종, 애노가 지휘한 농민군을 비롯하여 강원도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등지에서 투쟁이 세차게 벌어졌다.

이러한 농민들의 투쟁은 봉건통치배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신라의 봉건통치제도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다.

2. 후삼국의 출현

후삼국이라고 하면 10세기초 우리 나라 중남부땅에 세워졌던 후백제, 태봉국, 신라를 말한다.

9세기 신라 전지역을 휩쓴 농민전쟁시기에 농민군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악질관리놈들을 때려부시고 많은 지역을 차지하였다. 이때 농민군들의 성과를 리용해서 왕이 되려는자들이 나타났다.

오래전부터 왕이 되려는 꿈을 가지고있던 견훤이 후백제라는 나라를 세웠다.

견훤은 원래 상주의 봉건지주출신이였다. 그는 일찌기 군인으로 선발되여 신라의 수도에서 복무하다가 서남해변지대의 방위군으로 가있게 되였다. 그는 여기에서 지방군의 비장(참모격)으로 있었다.

당시 전국 도처에서 앙양되는 인민들의 투쟁을 리용하면 능히 왕이 될수 있으리라고 타산한 견훤은 농민군대렬의 지휘자로 나서게 되였다.

견훤이 농민들의 기세에 편승하여 수도 서남쪽의 여러 고을들

을 치기 시작하자 많은 농민들이 여기에 호응하여 나섰다. 그리하여 얼마 지나서는 그 대오가 5 0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되였다.

이렇게 되자 그는 무주(광주)를 습격하고 그곳을 거점으로 새 왕조를 세울 자기의 지반을 닦았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던 여러 농민군부대들까지도 자기의 세력밑에 넣었다.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자기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자 견훤은 900년에 완산주(전주)를 수도로 정하고 후백제라는 나라를 선포한 다음 왕이 되였다.

후백제가 세워지던 시기에 궁예가 또 하나의 봉건국가인 태봉국을 세웠다.

궁예는 원래 신라왕의 첩의 아들로 태여나 왕실의 버림을 받던 자였다. 그때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어린 궁예를 높은 다락우에서 집어던졌는데 유모가 떨어지는 궁예를 받다가 손가락으로 한쪽 눈을 찔러 애꾸눈이 되였다고 한다.

그후 궁예는 절간에 숨어지내지 않으면 안되였는데 자기를 쫓아낸 신라왕실에 대하여 깊은 앙심을 품고있었다.

그는 여러곳에서 신라왕조를 반대하는 농민폭동이 세차게 일어나자 이것을 좋은 기회로 여기고 북원(원주)에서 활동하던 량길이 지휘하는 농민군에 들어갔다.

궁예는 처음 얼마동안은 자기의 본심을 숨기고 열성을 보여 인차 농민군의 한개 부대의 지휘자로 되였다.

그후에는 자기에게 속한 농민군부대를 이끌고 강원도의 녕월과 강릉일대의 많은 군, 현들을 점령하였으며 차츰 독립적인 큰 세력으로 자라났다.

궁예는 계속 자기세력을 강화하여 898년에는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지방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였다. 그가 빠른 시일에 이렇게 많은 지역을 차지하게 된것은 이 지방에서 옛 고구려를 다시 일떠세우겠다는 구호를 내걸었기때문이였다.

원래 이 지방은 옛 고구려땅이고 이곳에 살고있는 고구려후손들은 옛날 고구려와 같은 강대한 나라를 다시 일떠세울것을 바라고 있었다.

궁예는 이러한 구호를 듦으로써 처음에 이곳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였다. 이것은 궁예가 새로운 국가를 세울수 있게 하는데서 유리한 조건으로 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 개성지방에서 큰 세력을 이루고있던 왕건도 궁예의 부하가 되였다. 왕건은 이 지방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있던 새로운 봉건세력으로서 강한 수군무력도 가지고있었다.

그리하여 궁예는 많은 지방 봉건세력들을 자기 부대에 끌어들일수 있게 되였다.

세력이 강해진 궁예는 점차 량길농민군을 배반하는 길로 나갔다.

늦게야 궁예의 속심을 알아차린 량길은 궁예를 공격하였지만 이미 강해진 그를 제압할수가 없었다. 결국 량길농민군은 싸움에서 패하였다.

그후 궁예는 별로 힘들지 않게 중부조선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였다.

궁예는 자기의 세력이 커지게 되자 901년에 고려(후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였다. 그러나 변덕스럽기 그지없던 궁예는 905년에 수도를 송악(개성)으로부터 철원으로 옮기였고 911년에는 나라이름을 태봉국이라고 고쳤다.

이때부터 우리 나라 력사에는 3개의 봉건국가인 후백제, 태봉국, 신라가 존재한 후삼국시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조선력사(중학교 제3학년용)
4판

집 필 **오영철**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유창일** 교 정
장 정 **류명심** 콤퓨터편성 **김은아**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교육도서인쇄공장
3판발행 주체97(2008)년 9월 20일
4판인쇄 주체101(2012)년 월 일 4판발행 주체101(2012)년 월 일

교—— 부 값 원